

[보고서]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바다를 넘어 손을 잡자

2016.6. 기지평네트워크



6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단장 인사
- 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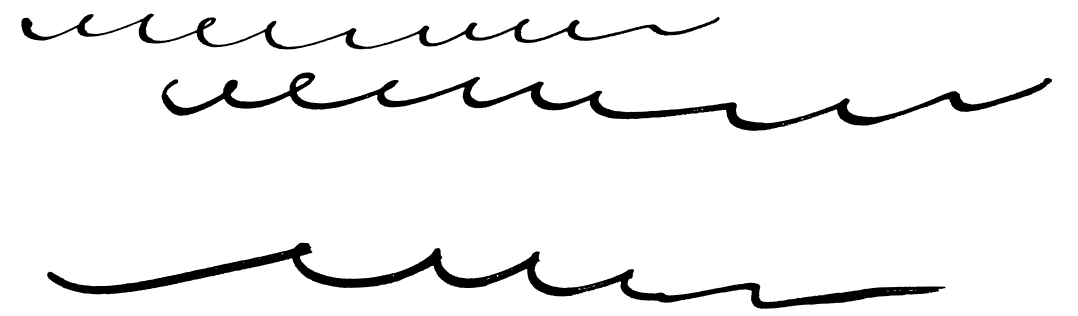
10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보고
- 박석진

참가자 후기

20 - 2016년 오키나와 평화기행에 다녀왔습니다. (노수용)
23 - 기지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 (박소현)
25 - 오키나와 평화 기행 (강희욱)
28 - 오키나와, 미군기지, 5.15. 평화행진 그리고 우리 (김태정)
30 - 지상의 평화 <오키나와 순례길> (박민규)
32 - 오키나와 평화행진을 다녀와서 (임윤경)
35 - 오키나와 방문 기행문 (김종화)
37 - 2016 오키나와 515평화행진 (최혜영)
39 -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참가기 (김용한)
44 - 기록과 기억 (강미)

심포지엄 발표문 모음

50 - 바다 넘어 손을 잡자_무력(武力)으로 평화는 이룰 수 없다. (사토 마나부)
52 - 새로운 전쟁위기의 원인, '한일 군사협력'_한일 평화민중연대의 필요성과 과제 (박석진)
62 - 안보법제와 자위대, 가나가와의 기지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기모토 시게오)
70 - 한국 미군기지를 둘러싼 쟁점 (강미)
76 - 미군기지, 기지촌, 여성들 그리고 두레방 (김태정)
80 - 미군 X밴드 배치 반대투쟁 보고 (오완 무네노리)
86 - “올 오키나와”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저지한다. (아라카키 토쿠쇼)
90 -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현장투쟁_제주강정 (최혜영)



인사말



平和は銃と刀で守られません!

命の宝庫、辺野古の海に米軍基地はい



평화의 인사로 만나요

강미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단장,
평택평화센터)

이번 오키나와 평화기행은 오키나와와 평택이 연대를 맺기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어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외미군기지가 있는 나라들은 특히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우리처럼 오키나와도 그 정도가 심하고 비슷한 처지여서 동지애를 느꼈던가 봅니다.

특히 오키나와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호섬인데, 미군 기지에 침해를 당하고 있으니 그 전쟁의 깊은 아픔과 함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오래된 싸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접하고 그 계기로 한국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진영에서 여러 가지 싸움의 방식과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키나와와 한국은 민중연대를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는 평화행진에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점점 확대되어 많은 해외 평화운동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서 오는 동무애로 끈끈해오던 이 민중연대는 생명평화 제주섬에 들어선 해군기지로 인해 좀더 넓은 생명과 평화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오키나와 평화기행에 제주, 강정 분들이 많이 오시고 반대로 제주 강정에서 진행되는 평화행진에도 오키나와 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미군기지 문제를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문제로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키나와 섬 주변의 아름다운 산호와 생명체들, 그리고 제주섬에 있는 산호군락과 생명체들이 군사기지에 의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지, 오키나와 다카에의 이루 말할 수 없이 웅장한 숲에서 헬기 훈련장을 만들어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매년 살살이 들여다보고 오는 평화기행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일본과 미군에 의해 오키나와 섬 주민들이 어떻게 버려졌는지 집단자결이란 생소한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합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짓밟아 왔는지, 일제시대 일본기지로 인해 고향땅을 빼앗기고 해방된 후에도 미군기지로 인해 두 번이나 고향을 빼앗겨 결국 다른 땅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대추리 주민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땅과 자연 그리고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평화기행은 많은 분들의 수고로움과 기행에 참여한 참으로 다양하고 에너지 넘치는 구성원들로 인해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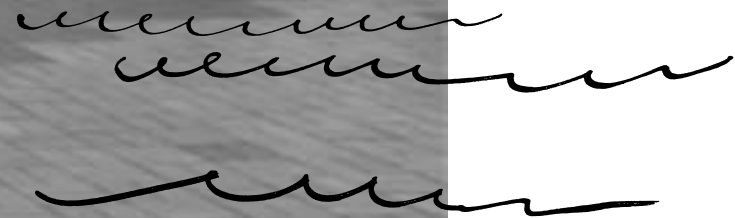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칠동안 저희 방문단을 챙겨주시고 애써주신 오키나와 민중연대 분들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기색없이 웃으며 활기찬 설명을 끝도 없이 해주신 다카하시 선생님과 이하 민중연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실무책임을 맡았던 분들에게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을 챙기고 일정 정리하고 또 돌아와서 보고서까지 정리하느라 고생이 제일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애정이 넘치고 넘쳐 항상 웃음과 노래로 즐거웠던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단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아낌없이 쳐주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인연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다들 또 평화의 인사로 만나요.



평화기행보고



“바다를 넘어 손을 잡자! 평화는 무기로 만들 수 없다!”

- 오키나와 평화기행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평화기행과 올해로 9번째를 맞는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행사가 진행되었다. 기지평화네트워크참가자와 제주·강정참가자까지 모두 26명의 한국참가단이 이번 평화기행에 함께 했으며, 매년 5월이면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평화행진에 참가하였다. 일본 내에서도 중요한 현안인 헤노코에 미군의 새로운 기지 건설 현장을 찾아 현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하였으며, 오키나와 북부 다카에 지역의 미군기지 건설 현장에도 연대의 발걸음을 이어갔다. 그 외 오키나와 평화기념관 방문을 통해 주일미군의 최대 주둔지인 오키나와의 아픈 역사를 접할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 5일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과 한국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군사기지의 확장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기 위한 한-오키나와 민중간의 소중한 연대로 채워진 시간이었다. 이 보고는 2016년에 기지평화네트워크가 진행한 오키나와 평화행진 및 국제심포지엄 사업에 관한

간략한 기록이다. 경험하고 배운 것에 비해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좀 더 많은 한국의 평화단체와 활동가들이 내용을 공유하고 좀 더 폭넓고 깊은 한-오키나와 민중 연대의 시도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 5월 11일(수) 오키나와 평화기행 첫째날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평화기념공원은 오키나와전쟁 당시 희생된 수십만 명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남부 마부니[摩文仁]언덕에 조성한 공원이다. 부채꼴 모양으로 생긴 공원에는 20만 명의 희생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검은색 위령비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것을 ‘평화의 초석’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의 만주침략 때부터 오키나와전투 때까지 이곳에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이곳으로 끌려와 사망한 한국 국적의 조선인 231명과 북한 국적의 조선인 82명의 이름도 새겨

져 있다. 공원의 한켠에는 이들을 기리는 동근 돌무덤으로 된 위령비가 있다.

2차대전 막바지였던 1945년 4월 1일, 20여만명의 미군이 오키나와 가데나만에 상륙하면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졌다. 6월 23일까지 83일간 이어진 전투에서 미군 4만여명 일본군 10만여명 그리고 12만여명의 오키나와 주민이 사망했다.(일본정부 추산) 이 전투에서 일본 제국군은 군인, 사령관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에게도 할복 자결을 명령했다. 4km 정도 길이의 ‘기자 반타(반타는 오키나와 말로 절벽)’에 동굴들이 많다. 오키나와 전쟁 당시 미국 함선으로 가득 찼던 바다. 동굴 안에 있던 오키나와 사람들은 도망갈 데가 없었고 미군에게 잡히면 (그 당시 일본 군인들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만나본적 없던 미군들을 도깨비, 괴물로 설명) 안됐다. 그들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집단자결 했다. 아니 정확히는 집단자결 당했다. 나오면 살려주겠다는 미군의 방송을 듣고 나온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군이 죽이기도 했다. 이같은 집단자결은 80년대 중후반 부터 이야기되기 시작 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다.



<이토만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연대의 밤

저녁, 한국에서 후발대로 출발한 사람들도 모두 도착했다. 이번 평화기행에는 한국과 오키나와 분들 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와 대만의 평화활동가들도 함께 한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 내일 저녁 정식 환영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이야기는 끊어질 줄 모르며 연대의 밤은 깊어간다.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 내 조선인희생자의 돌무덤과 위령비>



○ 5월 12일(목), 오키나와 평화기행 둘째날

헤노코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일본 오키나와현(沖繩縣) 북부 나고시(名護市)에 있는 작은 어촌마을. 1,500여명의 어민과 일본의 천연기념물 듀공이 어울려 살던 평화롭던 마을이 투쟁의 현장이 된 것은 1996년 9월 미일정부의 '오키나와에 관한 특별위원회(SACO)'가 기노완(宜野灣)시에 있던 후텐마 해병대 비행장을 반환하는 대신 헤노코 앞바다에 대체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사업 결정 직후부터 헤노코지역의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일본의 평화단체들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작은 천막 하나로 시작된 농성장은 천막촌이 되었다. 태풍이 오면 쓰러지지만 다시 천막을 치고 또 치고 그렇게 싸움은 계속된다. 경비용역들로 막힌 공사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연좌하지 못하도록 철제 바리케이트를 설치해놓았다. 헤노코에서나 강정에서나 저들의 대응수준은 유사하다. 미국과 아베정부는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후텐마 비행장에는 없던 탄약창들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전이 아닌 확장이라는 의미다. 기지 주변에서 매일 열리는 집회, 한국참가단도 함께 했다.



<헤노코 미군기지 건설 현장 앞의 농성장>



<매일 열리는 헤노코 신 미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한국참가단의 연대 발언>

가데나 미 공군기지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 최대규모의 해외주둔 미 공군기지.

한국의 오산 미공군기지과 함께 미7공군사령부의 예하 제18비행단부대가 주둔한다. 후텐마 및 화이트비치와 함께 유사시 한국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는 미군의 주둔기지이기도 하다. 일반 도로 양쪽으로 이어지는 기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키나와 내 가장 큰 소음피해지역이며 매주 금요일 항의집회가 이루어진다.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

오키나와 기노완시의 한 가운데 위치한 미군기지. 비행장 면적은 총 4.8km² 정도로 기노완시 전체 면적(19.5km²)의 약 25%에 달한다. 1945년 4월 오키나와 전쟁 당시 20여만명의 미군이 진주했다. 당시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던 기노완에 진주한 미군은 주민들을 수용소에 감금한 채 활주로 건설을 시작했다. 3~4개월 후 집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자신의 삶터가 군사기지로 된 사실을 알게 된다.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주민들은 기지 주변에 집을 짓고 살

기 시작했다. 후텐마기지를 주변으로 빼곡히 주민들의 거주지가 형성된 이유다. 활주로 주변 거주지에서는 추락 등 잦은 사고가 일어났고 미 국방장관이던 럽스펠드조차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이라 표현했다. 악명 높은 오스프리의 배치기지이기도 하다. 토지수용에 거부한 주민들은 10년간의 투쟁 끝에 후텐마기지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그 곳에 지어진 사키마 미술관, 오키나와 전쟁의 참상과 전쟁피해자들의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다. 후텐마기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옆에는 “청구지탑(靑丘之塔)”이라는 비가 서 있다. 오키나와전쟁 당시 죽은 한국인 징용병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기노완시 모습, 후텐마 미해병대 비행장이 도시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전망대에서 바라 본 후텐마 비행장 활주로>



<한국인 징용병들의 죽음을 기리는 청구지탑>

515 평화행진 결단식

오후 3시, 나하시내의 팔레트시민극장에서 열린 제39회 5.15평화행진 결단식.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서 온 참가단의 대표들이 인사와 결의를 밝힌다. 한국참가단은 강미(평택평화센터) 단장이 힘찬 연대의 연설로 화답하였다.



<한국참가단 강미 단장의 연대사>

한국참가단 환영식

저녁, 다시 숙소인 기노자촌의 쿠부무장. 커다란 불판에서 오키나와 민중연대 분들이 준비한 고기가 구워지고, 오키나와 소주인 아와모리가 돌려진다. 한 사

람도 빠짐없이 자기 소개를 하고 오키나와에 온 소감과 의지를 말한다. 헤노코 농성장을 지키는 ‘오키나와 지킴이’가 강정에서 받은 영감 때문에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남는다. 거대한 군사주의에 맞서는 작지만 소중한 한-오키나와 민중들의 연대가 오늘 오키나와의 밤에 다시 한 줄 새겨진다.



<한국참가단의 소개와 인사>

○ 5월 13일(금), 오키나와 평화기행 셋째날

5.15 평화행진 출정식과 행진 (헤노코 ~ 기노완시)

오전 10시, 다시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 농성장. 515 오키나와 평화행진의 사전행사 격인 출정식과 기노자촌까지의 행진이 진행되었다. 한국참가단의 연대발언은 김용한 대표(전 우리땅되찾기평택시민모임 대표)가 맡았다. 김용한 대표는 헤노코싸움이 시작된 1996년부터 20년 동안 오키나와와 연대를 이어 온 한-오키나와 민중연대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왔다. 끝까지 연대해서 마침내 이기겠다”는 한국측 참가단의 외침이 헤노코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5.15 평화행진 출정식에서 발언하는 김용한 전 우리땅되찾기평택시민모임 대표>



<출정식에 참가한 한국참가단>



<기노자촌까지의 행진, 한국참가단이 맨 앞에 섰다>

다카에 미군훈련장 (7800헥타. 나하시의 2배 규모)

오키나와 본 섬 북부에 펼쳐진 안바루(山原)는 풍요로운 숲에 둘러싸인 지역이다. 안바루 안에 히가시촌(村)이 있고, 그 북쪽 외곽에 인구 약 150명이 거주하는 다카에 마을이 있다. 1995년 미 해병대원들의 12살 소녀 성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미군기지 반환 운동. 당시 미국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후텐마 비행장과 나하군항 그리고 다카에 훈련장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다카에 훈련장의 22개 헬기착륙장 중 7개를 반환하는 대신 6개의 대체지를 요구한다. 다카에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조차 없이 사업은 강행되었고 현재 2개의 헬기착륙장이 건설된 상태. 주목할만한 점은 새로 건설된 헬기장의 규모가 기존 것의 2배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유는 문제의 오스프리 이착륙장으로도 이용하기 위해서. 다카에 헬기착륙장(헬리패드) 건설사업이 단순히 대체지 마련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로 판단되는 이유다.

문제는 더 있다.

다카에지역은 오키나와 현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의 70% 이상이 공급되는 식수원. 국민들의 식수원에 어떤 오염이 진행될지 확인할 수도 없는 군사기지가 들어선다는 것이 놀랍다. 이 같은 사업이 강행되는 이유에 대해 다카에 주민들은 오스프리 제작에 연관된 4000여개의 미 군수산업체들의 존재를 말한다. 실제 일본정부는 최근 17대의 오스프리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 국방부와 의회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대당 가격은 203억엔이며 총 도입액은 3800억엔, 한국돈으로 4조원에 달한다.

‘오스프리’

이착륙시 분출되는 고온의 화염은 300도에 달해 이착륙장 주변의 생물을 고사시키고 잦은 화재를 유

발한다. 높은 풍압은 인근 주택가의 지붕을 날려버리기도 한다. 잦은 추락사고로 미망인 제조기로도 불리는 미국의 최신예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다카에 훈련장 확장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현지 활동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림처럼 아름다운 오키나와의 석양과 만났다. 아름다운 곳은 늘 슬픔을 간직하는가. 아름다운 해변과 산호초, 듀공을 품은 헤노코. 윈시립 같은 숲속에 자리한 다카에 마을. 구름비를 담았던 강정과 붉은 노을 속에 젖어가던 황새울의 대추리와 닭았다. 어찌보면 우리의 투쟁은 아름다운 것들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일수도 있다.



<오키나와의 아름다운 석양,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 5월 14일(토), 오키나와 평화기행 넷째날

#제9회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오키나와 평화기행 일정 중 유일한 실내일정. '제9회 동아시아 미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예정된 날이다. 이 심포지엄을 위해 한국의 기지평화 네트워크와 오키나와 민중연대는 지난 몇 달간 주제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주된 주제는 '전쟁의 위기'.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정세와 아베정부 이후 심화되어가는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주제 선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포지엄 발제문들을 참고해주시길.

OKINAWA'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구호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



<나하시내의 호텔에서 진행된 오키나와-한국 평화교류회>



<심포지엄을 마치며, 바다를 넘어 손을 잡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심포지엄 후 나하시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오키나와 평화교류회. 오키나와 민중연대 분들이 준비한 소박한 공연과 정갈한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진다. 압권은 우리로 말하면 오키나와 민중 가수분의 선창으로 합창이 된 '님을위한행진곡'과 '아침이슬'. 모두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하나가 된다. 'ALL

○ 5월 15일(일), 오키나와 평화기행 다섯째날

5.15 평화행진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 2박 3일 일정 중 마지막 날, 오전에 행진에 참여하였다. 한산한 시골길을 걸었던 첫날과 달리 도심을 걷는 동안 지나가는 차량과 건물에서 손을 흔들어주는 오키나와 주민들을 보았다. 오키나와 현립박물관 옆 공원에서 행진을 마무리하며 열린 집회, '복귀 44년 5.15 평화와 삶을 지키는 현민대회'에서 한국 참가자를 대표하여 강정마을 강문신 부녀회장이 발언하였고,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자리를 함께 하였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야 할 자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오키나와와 연대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는 강문신 부녀회장의 발언에 이어 "함께 걸자, 함께 외치자, 오키나와의 평화, 강정의 평화"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뜨거운 태양에 지친 몸이었지만 5.15 평화행진의 함성과 기운을 받아 오키나와 미해군기지인 화이트비치

를 향해 달렸다. 일본 해상자위대 기지와 나란히 있는 미국의 해군기지, 미일 동맹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이 곳을 들르는 미해군 함선들과 일본 자위대 함선들이 제주 강정에 건설된 한국 해군기지에 오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한미일 군사협력이 제주 강정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오키나와의 그것과 닮은 모습이 될 것이다.



<5.15 평화행진 정리집회에 참석한 한국참가단>

○ 글을 마치며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5박 6일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빼곡한 기억으로 가득찬 시간이었다.

그 시간들 안에 채워진 것은,
고통스러운 오키나와 민중들의 역사.
그럼에도 딛고 일어서는 그들의 평화를 위한 투쟁.
그리고 그들의 삶.
그것들은 우리의 시간들과 많이 닮아있었다.
매향리에서 대추리에서 그리고 강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의 시간들.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기억들은 각자의 가슴 속에 한 줄, 한 줄 깊게 새겨졌다.

그것은 서로 다르지 않은 고통에 대한 공감의 기억이며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억이며 잡은 손 놓치 않을 한일 민중간의 연대의 기억이다. 오키나와 평화대행진 기간동안 많은 집회와 행진에서 수 없이 불러졌던 노래.

'沖繩(おきなわ)を返(かえ)せ' (오키나와를 돌려줘) 민중들의 것을 민중에게 되돌리는 날까지 투쟁은 그리고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다시 만나는 날,
함께 손잡고 힘찬 노래를 부를 것이다.



<헤노코농성장에 남겨진 연대의 메시지>



참가자 후기



2016년 오키나와 평화기행에 다녀왔습니다

노수용 (평택평화센터)



오키나와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은 평택에 있는 카페 ‘토브’라는 곳에서 오키나와에서 오신 분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다. 오키나와에서 일어나는 비극들과 그런 비극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본 본토의 미군들을 오키나와로 보내려는 일본 정부와 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곳에 가서 이 자리에서 들은 것들을 조금 더 보고 싶다고 생각 했었고 이번에 오키나와에 가게 되면서 그 바람을 이루게 되었다.

사전에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교육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키나와의 역사와 현재 상황 등을 간략하게 보면서 조금 더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키나와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오키나와라는 곳이 단순히 미군기지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부터가 군대와 전쟁으로 인한 슬픈 기억들이 남아있고 어쩌면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행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기대를 하게 되었다.

오키나와를 방문하는 첫날 오키나와에 도착해서 간 곳은

오키나와의 평화 기념관과 오키나와 전쟁에서 남학생들이 피난했던 동굴이었다. 처음 동굴로 들어가면서 오키나와 전쟁 당시 상황을 들으면서 어린 학생들이 어찌서 그런 작은 동굴에서 자결을 선택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은 오키나와의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천황에 대한 충성만을 교육하면서 어린 학생들을 전쟁터로 내몰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슬픈 감정이 들었다. 동굴에 잠시 있다가 전쟁 당시에 동굴 근처의 숲에서 피난민들이 물을 마시던 장소를 갔다. 커다란 바위 아래에 샘물이 고여 있는 장소였는데 그곳에서 미군들이 물을 구하러 온 일반 피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그 이후에 그 물로 밥을 짓는데 밥이 빨갛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후에 이동하게 된 곳은 오키나와의 평화 기념관이였다. 오키나와에서 만난 활동가 분들에게 오키나와 전쟁의 마지막 전장이 되었던 장소인 평화 기념관의 옆에 있는 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다로 들어오며 투항하는 민간인들을 살려주겠다는 미군들과 그 뒤에서 투항하는 민간인을 총으로 쏘 죽였다는 일본군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 당시 한국인 희생자들의 추모비에도 가보았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들이었다. 얼핏 봐도 수십 개는 될 듯한 검은 비석에 흰색으로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단순히 민간인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미군이나 다른 해외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건 누군가의 아버지나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적혀있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들은 어떤 사정으로 이름조차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이런

이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오키나와 전쟁의 희생자들이 몇 십만, 몇 백만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남지 못하더라도 한명 한명으로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장소였다고 생각했다.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간 곳이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 반대 농성 텐트와 시위 현장이었다. 처음 헤노코에 도착해서 농성장에서 헤노코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와 지금까지 해온 기지 건설 반대 농성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시위 현장을 잠깐 보고 난 뒤 이동했다.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잠깐 게이트를 건설하던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곳에서 연좌농성을 하기도 하고 벽돌을 쌓아서 건설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위 현장으로 이동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봤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동한 곳은 오키나와의 평화 대행진의 결단식이였다. 여러 사람들이 결단식에 참여했고 발언했다. 결단식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가 환영식을 했다. 첫날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다시 한 번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번째 날 오키나와의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약 9km 정도를 걸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어떤 노래의 가사 중에 ‘민족의 분노에 불타는 섬 오키나와여’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오키나와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위협받아온 오키나와 사람들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던 가사이기도 했다. 이 노래 외에도 코코에 스와리코메(이곳에 주저앉자) 같

은 여러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다. 햇볕이 강렬하게 비치는 중에도 의지를 가지고 행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끼기도 했다.

오전에는 행진에 참가하고 오후에는 안바루라는 오키나와 북쪽의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엄청난 규모의 숲이 있는 지역이었다. 안타깝게도 그곳도 미군기지가 들어선 장소였는데 주로 쓰이는 역할은 훈련장소의 역할이었다. 설명으로 듣기로는 베트남 전쟁 때부터 훈련을 하던 장소였다고 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미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 더 이상 미군이 그런 밀림에서 싸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런 훈련에서 생기는 환경적 피해도 엄청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안바루의 미군기지는 반 정도의 규모를 반환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데 그 약속의 대가가 6개의 헬기포트를 새로 짓는 것이었다. '오스프레이'라는 수직 이착륙 헬기의 헬기포트인데 이 헬기는 추락했다는 기록이 꽤 많은 헬기라고 했다. 그런데도 주변에 민가가 있고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그곳에다가 그런 헬기를 띄우는 헬기포트를 건설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서 역시 돈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 날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한국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강정 마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의 미군이 들어서면서 생긴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다.

일정의 마지막 날 평화행진의 마지막 날에 참가했다. 첫날과는 다르게 조금 더 도시에서 행진을 했는데 중간 중간 응원을 하거나 손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행진의 마지막에 도착한 공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보고 오키나와 사람들이 얼마나 미군기지를 생각하는지를 알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비치라는 곳을 가는 것을 끝으로 이번 오키나와 여행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이번 여행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다. 평화를 위해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와 계기를 얻은 것 같다. 단순히 전쟁을 위한 기지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지가 없어진 이후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배운 것들은 앞으로도 소중한 경험으로써 남을 것 같다. 또 올해는 10대의 나로써 배우는 자리를 가지기 위해 참여했다면 내년에는 이왕 20대 타이틀을 다는 김에 무언가를 하는 나로써 다시 한 번 오키나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참가자 후기]

기지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

박소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깊고 질긴 인연은 언제 부터였을까.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일장기가 내려간 그 국기계양대에 성조기가 올라갔던 그때부터였을까. 일본의 패전에도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슬쩍 주었을 때부터였을까. 미국은 당시 오키나와를 미군정 아래 두고 거대한 아시아 침략 기지를 건설할 기반을 마련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점차 확장해나가고 있다. 종전 71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오늘에 와서도 여전히. 이러한 미 국방정책은 복잡적이고 광범위한 정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문제를 꾸준히 낳고 있다. 이런 복잡하고 다층적인 갈등의 양상이 집약적으로 포착되는 지점이 바로 미군기지 문제가 아닐까 싶다.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지로 정해진 헤노코 신기지 공사현장 앞 농성장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의 기지가 단순히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요새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기지가 만들어지면 헤노코 바다는 미국의 바다가 된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기행 일정 중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헤노코 농성장이었다. 여기에서 그 누가 강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올해 초 결국 강정마을엔 해군기지가 들어섰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덧칠한 것이 무색하게 벌써부터 마을 내부에 총을 들고 군인이 들어와 훈련을 하는 등 비민주적일뿐더러 그 자체만으로도 폭력적인 행태들이 최근에 벌어졌다고 한다. 곧이어 다음 달인 6월엔 미군이 훈련을 목적으로 해군기지에 들어오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미군기지가 절대 아니라고 해군이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점차 미군의 기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 뻔하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오고 간다. 이는 헤노코나 강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기지 주위에서 살아가거나 그럴 예정에 처한 주민들은 다양하고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어떠한가. 오키나와 전쟁 당시, 오키나와 본도에 상륙한 미군은 마을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소로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일본 본도를 공격할 목적으로 후텐마 기지를 건설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 명 정도 살고 있던 꽤 변화했던 마을에 거대한 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기지 건설 후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멀리 떠나지도 못한 채 그와 가까운, 철조망이 쳐진 기지 바로 근처에 집과 학교를 짓고 살아왔다. 이는 전투기 소음 문제 같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기지 건설 자체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대추리에서도 반복되었고 오키나와 북부 지방 안바루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다. 안바루는 오키나와의 수원(水源)이다. 이곳이 오염된다면 나하에 보급되는 물 75% 이상이 문제가 생기게 된다. 미군기지 내 환경 파괴 문제가 일반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라고 보았을 때 이곳

에 여섯 개의 헬기착륙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은가. 그것도 그 중 하나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이며 그냥 헬기착륙장이 아니라 엄청난 풍압과 잦은 사고를 동반하는 오스프리 이착륙장이라면 말이다.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없이 부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미군의 태도는 후텐마 기지를 건설할 무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기행에서 가슴으로 느낀 말이 있다. ‘오키나와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라는 말이다. 오키나와에서 목격한 기지문제는 한국의 문제와 닮았다. 국제 정세에 따른 기지 건설의 양상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고, 과거의 질긴 연을 이어오는 것 이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활동가들이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한다. 뜨거운 태양,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과 그 너머에 있는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산호 해변이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오키나와. 눈부신 만큼 지키고 싶어지는 이곳에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힘이 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손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가자 후기]

오키나와 평화 기행

강희욱(작은형제회)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

위로 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중에서 -

평화!

안녕하세요. 아직도 오키나와에서의 뜨거웠던 체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강희욱입니다.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평화 국제 심포지엄과 평화대행진을 참가하고 왔습니다. 천주교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정평창보) 일환으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곳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수도원 작은 제 방에서 오키나와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들려옵니다. 머리보다는 입술에서 먼저 흥얼거리던 군요. 주먹을 불끈 쥐고 미군기지 결사반대!를 외치던 모든 이들이 눈에 선합니다.

동료 수사와 함께 5월 13일, 다른 팀들보다는 이틀 늦게 오키나와에 도착하였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선발팀에서 보내는 소식과 사진들을 보면서 어서 빨리 오키나와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제주 강정과 너무나 닮은 곳, 우리나라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되도록 하루라도 일찍 보고 싶었습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기엔 공항에는 한국인들이 많았습니다. 관광이 아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오키나와에 도착하니 장소 개념을 뛰어넘어 그곳



을 살아가는 이들과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하공항 근처 숙소에 짐을 풀고 밤길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여유롭고 깔끔한 거리, 정숙한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 처음으로 일본음식도 먹어보았는데, 성품이 담소해 보이는 두 분의 할머니께서 해주신 요리는 오키나와에 마음이 끌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역사와 그 안의 아픔, 약자로서의 서러움 등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날이 더 기다려졌나 봅니다.

다음 날 오키나와 현립 박물관에서 한국 일행들을 만났습니다. 이들 먼저 도착한 형제·자매들은 헤노코 농성장, 기지견학, 남·북부 견학 등 많은 체험들을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 모두가 하나가 된 모습은 힘이 넘쳐 보였고 평화스러워 보였습니다. <바다를 넘어 평화의 손을 잡자>, 이 말이 이번 국제 심포지엄의 주제가 된 듯합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다른 곳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평화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와 제주, 넓게는 한국과 일본의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투쟁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의 무한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심포지엄의 모든 발표에서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평화를 원하는지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토 마나부의 '무력으로 평화는 이룰 수 없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립을 부추기고 권력을 유지·확대하려는 이 시대의 흐름과 제 3의 세계대전을 만들어내는 체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은 전쟁을 '평화의 문제로부터의 비겁한 도망'이라고 말합니다. 마나부도 발표를 끝내며 '20세기를 되풀이하기에는 슬픔이 벽차오른다.'며 비겁한 도망을 하기 보다는 평화에

앞장서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 연대의 박석진 발제자는 한반도에서 심화되고 있는 전쟁위기의 원인을 잘 짚어 주었습니다. 또한 한일 군사협력의 전개 상황과 배후가 되는 미국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결론으로 한일 군사협력 반대투쟁이 전쟁위기 구조를 허물고 평화와 공존의 구조를 시작할 수 있는 열쇠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이 전쟁을 향해 가는 구조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은 개개인에게 커다란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한 일본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여 응했습니다. 수도자로서 이런 뜻 깊은 자리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발표를 통해 느낀 점으로 '기억의 중요성'과 '역사 사실들을 올바르게 알고 전해야 함'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오키나와 사전모임에서도 오키나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눈이 번쩍 뜨이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어떤 이들에겐 지루하고 따분한 진실이더라고 부단히 외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부패와 부조리들 그로 인해 은폐되는 진실들 또한 끊임없이 되새기고 외치고 역사가 항구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교류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류회란 이름 그대로 그동안 투쟁하고 싸워오던 성과와 한국과 일본의 나뉠대로의 경험과 뜻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단상에 올라 소개를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키나와와 한국의 투쟁의 역사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웃

음과 공감으로 하나 된 시간은 잘 잊히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와의 아쉬운 이별이 있던 날은 곧, 515 평화행진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함께 걷고, 노래하고, 외쳤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행진을 참가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현민들은 물론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사람들과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고 응원해주는 남녀노소 모두가 큰 힘을 이루었습니다. 분열과 분리에선 언제나 슬픔이 따르고 화해와 일치 안에선 기쁨이 북받쳐 오름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민대회 마지막에도 밖에서는 보수 단체의 분열을 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올바른 역사적 사명으로 하나 되어 평화를 외치고 일치를 꿈꾸며 아픔을 사랑으로 극복하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를 통해 제 스스로 느끼고 바뀐 점이 많아 기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다음번의 만남을 기약합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5.15 평화행진 그리고 우리

김태정 (두레방)

2014년 교토에서 기지평화네트워크 심포지엄이 있어 참석 한 적이 있었다.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은 여성문제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미 기지네트워크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 안엔 여성의 문제가 계속 없었던 것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래서 두레방의 활동 즉 미군기지 앞의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를 다른 내용을 기지평화네트워크에서 공유 할 수 있을까라는 제시를 하였고 고맙게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녁에 도착하여 오키나와는 뜨거운 햇빛은 그 다음날에 되어야 느낄 수 있었다. 새벽 6시반에 출발 하여 헤노코 농성장에 가려한 계획은 헤노코 공사 중단으로 숙소에서 8시에 출발하였다. 스와브(shwab) 캠프 정문 앞에는 헤노코 기지를 반대하는 허름한 천막이 있었다. 태풍이 불었을 때 전부가 날아가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 천막 안에는 그 동안의 활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현재 헤노코기지는 공사가 잠시 중단 되었지만 언젠가 다시 시작할 공사이다. 그래서 활동가들은 지지치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곳을 향해 소리친다. 멈추라고!!

다음날 들던 대로 오키나와의 더위는 뜨거웠다. 평화행진 출정식에 참석한 우리는 반나절 걸었다. 오랜만에 느꼈던 뜨거움이었을까? 점심을 먹으면서 머리가 아파왔다. 그래서 다카에가는 버스안에서 차가운 손수건은 내 머리위에 있어야 하였다. 점심을 먹은 위치에서 다카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 반나절 걸었다고 힘들을 호소하는 나의 몸은 그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창밖엔 가끔씩 바다가 보였고 처음 본 나무들을 보았다. 그리고 도착한 다카에 소소한 천막이 있었다. 우리는 안내에 따라 천막 안에 앉았다. 우리는 다카에 이 지역에 미군이 헬기 이륙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전에 사용하던 헬기이륙장은 반환하고 그 대신 새로운 헬기이륙장을 만들자는 것이 미군과 일본 정부의 주

장이다. 하지만 그곳은 신기한 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 곳을 일본 정부는 다케에의 자연환경을 유네스코에 올리고자 하면서 숲을 망치는 헬기이륙장을 만들고자하는 아주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각자의 활동과 각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레방의 여성들의 이야기가 처음 기지평화네트워크에서 나뉘졌다. 다음이 있다면 오키나와, 일본 본토에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을 다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참석하여 그들의 활동이 공유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평화행진이 있는 마지막 날 아침부터 햇빛은 굉장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햇빛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듯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었다. 걸으면서 우리 행진에 지지해 주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들도 같이 흔들어 주었다. 오키나와는 활동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멀리 시민들이 지지를 해줌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행진이 끝난 후 공원에 다 모여 발언을 하였다. 한국 팀은 제주 강정에서 하였고 힘 있는 부녀회장님의 발언은 모인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공원 밖으로는 아주 큰 소리인 소음이 가까운 큰 소리! 일본 우파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차에 달린 확성기를 통해 발악하고 있었다. 일본어를 몰라서였을까 아니면 그 의미를 예상하고 있어서 일까 나는 그저 소음으로 심각하게 귀를 막고자 하였다. 결국 그 소음이 왔을 때 귀를 막았다.

일정을 마치고 조금 더 나는 오키나와에 머물렀다. 관광객으로 빙의되어 유명한 지역을 관광을 하였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여성이 나의 티셔츠를 보고 다카에에 다녀왔냐고 그 티셔츠 너무 멋있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 티셔츠는 다카에에 갔을 당시 산 티셔츠로 평화 표시에 숲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젊은 여성 즉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이 알아 준 것에 기분이 좋았다. 처음으로 방문 한 오키나와는 한국과 많이 닮아 있었다. 왜 닮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 여성처럼 오키나와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오키나와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상의 평화 <오키나와 순례길>

박민규 (작은형제회)

수도원에서 JPIC(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활동을 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이번 오키나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교 수업 때문에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 밖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강한 인상을 받고 온 것은 확실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첫 날은 저녁에 도착하여 합류할 수 없었기에 1박2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상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세미나와 다음날 짧은 행진이었다. 때문에 가기 전 많은 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느끼는 생동감은 다를 것이라 어느 정도 생각했고, 이 어렵듯한 느낌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맞을 듯하다. 우선, 본인 삶의 대부분을 평화운동에 투신하는 이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가졌다는 자체로 많은 각성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오키나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치고 있었던 현지 분들에게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를 받으며,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먼저, 세미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고 학술적인 느낌이 들지만, 오키나와에서의 세미나는 달랐다.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학술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현장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

하여 절절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사실, 우리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이러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연구하며 살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신앙과 관계없이 전 존재를 올인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짐을 알 수 있었고 많은 자극을 받았다. 배우고 익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생의 중심을 건드리며 포효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날, 5Km라는 비교적 짧은 평화행진을 하였다. 행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리며 참여하였다. 하지만 행진을 하면서 여기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느낄 수 있었다. 시위를 결집한 행진이었지만, 매우 질서정연하고 무력 충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말 그대로 평화로운 행진이었다. 주민 대부분이 함께 동참해 주고 응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

다. 시위가 부럽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에 들어온 느낌이었다.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다. 그것이 진실과 평화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에 그 벽참은 배가 됨을 또한 발견한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자상에서의 천국을 잠시 맛보고 왔노라 감히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평화는 조용하고 모두가 서로 이해하는 상태가 아니라, 진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이번 시간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평화가 실현되고 있으며 천국을 살고 있는 것이라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군가는 승산 없는 싸움이며 시간낭비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이야말로 기적이며 진정한 승리임을, 실제로 살아가는 이들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심스레 밝혀보는 바이다.



오키나와 평화행진을 다녀와서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들어가기

기지와 생활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평택과 같이 미군기지에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면 기지에 대해 무시하려 해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지요. 미군기지의 규모와 기능은 매우 다양하고 비행장이나 사격훈련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기지의 종류와 소속부대의 성격 등에 따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져요. 그것은 미군기지에 대한 주민 의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소음공해나 훈련에 수반되는 사고의 위험성도 장소에 따라 다르니 주민의 입장도 다양할 수 밖에 없어요. 나 또한 미군기지 문제를 생각할 때 나의 판단이나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 오키나와 평화 기행단을 참가하게 된 건 그 이유 때문이에요. 나는 미군기지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의 판단이나 태도는 명확한가? 이런 생각들은 기지를 각각 조사하는 동시에 해당 지역을 찾아가 기지의 훈련, 피해실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바탕으로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5박 6일간의 내가 본 기지마을과 농성장의 일면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 속의 미군기지

우리 일행이 탄 비행기가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들어서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하공항 안, 커다란 전투기들이었어요. 민간기와 전투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은 흡사 영화세트장 같은 묘한 장면을 연출했지요. 예전엔 미군기지였던 나하공항 일대는 오키나와에 반환되면서 자위대 기지로 전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하공항에는 자위대의 해군, 공군, 육군 기지가 모두 있어요. 오키나와라는 곳이 기지와 주민들의 일상공간이 얼마나 밀착되어있는 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했지요.

오키나와 시내를 차로 이동하면서 또 한 번 놀라웠던 것은 미군기지가 민간 지역과 아주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가

느다란 철망 사이로 기지내의 숙소, 시설, 군인들이 보이고 훈련도 민간 지역 바로 옆에서 시행한다고 해요. 언제나 누군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수없이 반복되는 폭탄 소리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실탄 소리. 평택 오산기지 주변에서 전투기 뜨는 소리를 연속으로 들으면 우르릉 하는 소리와 진동이 지면에서 몸속까지 울려 퍼져요. 그 소리가 지금도 뚜렷이 귓전에 남아 있는데 기지 옆에 사는 주민들은 어떨까요. 이런 경험들은 미군기지에 대해, 전쟁과 같은 공포로 다가가게 될거라 생각해요.

오키나와 전쟁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1952년 주권을 회복했으나 오키나와는 이후 20년 더 미군의 통치를 받아요. 다수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이 오키나와를 버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일본 본토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심포지엄도 일본·한국 국제 심포지엄이라 하지 않고 오키나와·일본·한국 국제 심포지엄이라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이지요.

오키나와 전쟁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지키지 않았어요. 일본군의 주민학살 사례는 오키나와 전투의 기록과 증언 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전쟁터에 몰아넣는 한편, 방언을 사용하는 자를 스파이로 간주하는 등 처음부터 오키나와 주민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해요. ‘살아서 포로의 치욕을 당하지 말 것’을 주민에게 강요했고 동시에 미군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겨 만일을 대비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수류탄을 건네주었다고 해요. 지켜주어야 할 주민에게 ‘자결’을 강요하여 오키나와 각지에서 강제적 집단 자결이 일어났지요. 오키나와 전쟁의 집단 자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은 아픈 역사였다고 해요. 역사책에도 나

오지 않은 비밀스러운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네요. 이런 남다른 아픔을 가진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미군기지 반대운동은 단순히 기지반대만을 외치는 건 아닐거예요. 오키나와 전쟁이 아니어도 지금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본도 그것과 관련이 없지 않잖아요. 세계의 문제, 일본의 문제, 오키나와의 문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필연적으로 전쟁의 문제도 생각하게 되지요.

농성장 그리고 연결하기

미군기지 반대농성 18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헤노코 농성장에서 집회를 하는 오키나와 활동가들은 대부분 6,70대 분들이세요. 간혹 젊은 청년들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머리가 하얀 어르신들이 많아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회를 할 수 있는 힘은 그 어르신들의 의지와 신념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기지 문제를 생각하면, 그것은 전쟁이 있었기에 존재하게 된 것이고 전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체험을 추측해서 재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런 전쟁체험을 계승하고 그것을 자신과 가까운 것으로 느끼게 하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든 오키나와 활동가들이라고 봐요. 보고, 듣고, 현장을 걸어보면서 다양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없는 전쟁문제를 나이든 활동가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찾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되지요. 푹푹한 젊음만이 타인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숙한 나이 들도 타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과거에 벌어졌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쟁을 그만두고 평화의 길을 갈 지, 아



니면 또 다른 전쟁으로 몸을 맡길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오키나와의 나이든 활동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힘은 분명 평화의 길로 안내하리라 믿어요.

태양 때문에 ...

후끈후끈한 오키나와의 날씨. 여름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기에 딱 좋아요. 단단히 먹은 마음을 다 녹여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데 여름만큼 좋은 계절은 없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와 거리를 행진하면서 이글거리는 태양을 비켜갈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태양에 당당히 맞서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글거리는 태양 때문에 온몸에서 땀이 나고 숨이 차오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행진을 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며 하는 일이 가치가 있을수록 새로운 길은 늘 펼쳐져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말이에요.

태양 때문에 정신줄을 놓게 되는 절기 여름. 그래서 인가 오키나와에서 나는 주눅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자신감 없고 주눅 들어 있었어요. 태양 때문에 흐리멍텅해진 정신줄과 마음은 갈 길을 잃고 잡념에 흔들렸지요. 어떤 날은 너무 더워서, 또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혹은 기분 탓으로 교육을 '빼먹거나', 급하게 약속을 취소해 버리는 일이 왕왕 있잖아요. 내 행동을 결정 짓는 이유는 딱 잘라 몇 가지로 추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씨, 몸 상태, 친구의 문자메시지, 과제, 남편의 기분, 아까 읽다 밑줄 그은 구절, 동료와의 관계, 어제 봤던 다큐멘터리의 내용 등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하나로 계열화할 수도 없는 다양한 사태들이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키나와에서 내 모습은 뭐라 고정할 수 없는 '나'였지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주는게 필요한 것 같

아요.

밀도 있는 뼈는 몸통을 땅바닥에 우뚝 설 수 있게 하고, 충만한 마음은 잡념에 흔들리지 않게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비켜서지 않고 정면에서 있는 그대로 현장에 맞설 수 있어요. '정신줄' 놓게 하는 여름, 마음 다잡고 악착같이 넘어야 겠지요!

평택으로 돌아와서

거대한 미군기지과 자위대가 존재하고 미·일 군사 훈련이 매일같이 시행되고 있는 오키나와. 오키나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투쟁현장과 집회 등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미군기지 문제를 좀 더 숙고하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는 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형태만 달리했을 뿐 전쟁도 점령도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닐까? 평택 주민들의 삶 속에 미군기지는 어떤 의미일까? 또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과거의 대추리 경험과 오늘날의 평택주민들이 겪고 있는 미군기지 문제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미 지들이 교차하네요.

돌아오자마자 '미군기지 안내자 양성과정' 교육과 '탄저균 추방, 사드배치 반대 평택시민권기대회'를 참가하면서 여태 걸어온 길과 새롭게 걸어갈 길들을 생각해봤어요. 희망이나 평화의 참된 의미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해요. 그 과정이 비록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여전히 평택평화센터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미군기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둠지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전을 위해 마음가짐을 한 점으로 응축해봐요 아자^^

[참가자 후기]

오키나와 방문 기행문

김종화 (작은형제회)



저는 가톨릭 수도단체인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소속의 김종화 형제라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12세기 중세 이탈리아 아씨시에서 살았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을 따라 걸어가려는 수도회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알려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르려는 삶이고 특히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똑같이 소중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라는 가치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와 고뇌의 현장은 좌절과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와 오키나와의 군사기지화는 생명이 무엇이고 평화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생명과 평화의 배움을 위해 좋은 분들과 함께 오키나와를 방문하게 되어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민들은 미군기지 철수와 함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며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대략 오늘날의 오키나와의 역사를 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명·청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독립왕국시대(1372-1874), 중국과 일본 양쪽과 관계했지만 일본 남부의 사쯔마 번의 지배를 받았던 반-독립왕국 시대(1609-1874), 근대 일본의 현이었던 시기(1872-1945), 초기에는 미국의 군사점령지, 1952년 이후에는 대일강화조약에 의한 군사식민지였던 시기(1945-72), 그리고 1972년부터 오늘날까지는 다시 일본의 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군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키나와는 1945년 오키나와 전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았으며, 1972년 일본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일본에 의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거점 삼아 전세계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했고, 그에 더해 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키나와는 이중적인 식민지적 통치체제하에 놓이게 됩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의 한 현이지만, 주일미군의 4분의 3이 주둔하고 있으며, 또다른 주요 군사시설이 오키나와 북동부의 헤노코에 들어서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고장이 잦고, 사고뭉치 헬기인 오스프레이를 오키나와에 배치하게 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2013년부터 일본 정부에 오스프레이를 철수하고, 오키나와 현 내에 있는 후텐마비행장을 무조건적으로 철수하고 헤노코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스프레이 배치를 두 배로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인구의 4분의 3이상이 이러한 기지 건설 계획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안심시키고, 헤노코가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한국의 제주도 강정과 일본의 오키나와는 중요한 측면들에서는 서로 매우 다르지만, 동아시아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입니다. 제주 강정과 오키나와는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의 여러 민족들을 연결하는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구축하고, 센카꾸/다오위다오제도를 비롯한 섬들과 인접한 바다를 연결하는 평화의 바다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1879년 류큐왕국의 쇼오타이 왕은 메이지 정부에 나라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명이야말로 보물(누찌도오 타까라)!” 이 말은 1945년 오키나와전의 참화에 서 살아남은 오키나와 사람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제, 군국주의 그리고 식민주의로 점철된 역사 속에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죽음보다 생명, 전쟁보다 평화, 총보다 산신(오키나와의 전통

약기)이 더 소중하다는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항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도 이제 해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오고 전쟁기지로서의 역할을 이행할 것입니다. 제주 강정을 보면서 오키나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오키나와를 방문하면서 강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저항을 보면서 생명평화 운동이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요한 14,27). 세상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소유하고 유지해야 얻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반대로 그것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순간 사라지는 평화이기도 합니다. 재물도, 건강도, 지위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으니, 있어야 보장받는 평화가 아니라 없어도 그냥 있는 평화일 것입니다.

오랜 인류 역사 안에서 전쟁이 없던 기간이 단 286년뿐이라고 합니다. 이는 있어야 평화가 아니라 없어야 평화라는 명제가 참임을 잘 말해줍니다. 이번 오키나와 방문을 통해서 참 평화의 세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 후기]

2016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

최혜영 (강정)



제주 강정팀으로 515 평화행진 일정에 참가하게 되었다. 오키나와 투쟁에서 강정의 현재를 보고 제주를 보았다. 2007년 거짓말처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와 결과적으로는 2016년 해군기지가 준공 되었다. 평화의 섬이라 명명했던 제주도는 이제 기지의 섬으로 변하게 되었다. 기지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곳이라 생각해 이미 들어온 해군기지와 앞으로 들어온 모든 기지를 반대한다. 이는 오키나와 현민들의 모습에서도 배운 것이다. 4.3의 역사 속에서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기지 반대와 평화운동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들어온 것은 오키나와 전쟁 이후 71년 정도 되었다. 오키나와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가해자이기도 했던 오키나와 현민들은 기지를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한다. 오키나와 땅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에 출격하는 것을 보며 적극적 가담자가 아니더라도 동참한 것이니 더 이상 전쟁에 묵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다.

현재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 현지사의 협상으로 신기지

건설이 중단된 헤노코에 방문했다. 제작년에 봤던 하나의 작은 천막은 줄줄이 거대한 천막촌을 이루었다. 2차선을 사이에 둔 천막은 24시간 동안 캠프 슈와브 감시를 하며 미군에 압력을 주고 동시에 일본경찰이 쉽게 활동가들에게 손대지 못하는 힘이 된다고 한다. 미국과 아베 정부는 후텐마에 있는 미군기지가 헤노코로 이전 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후텐마에는 없는 탄약고들이 여기, 헤노코 바다 밑에 건설되고 있다. 기지의 이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지인 것이며 기지 확장인 것이다. '헤노코 바다의 주인은 미군이 아니다. 오키나와의 것이다. 한번 기지가 만들어 지게 되면 미국 것이 된다. 저항하지 않으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코브상은 말한다. 기지 확장이라는 이 사실을 일본 본토사람들도 알게 되어 각지에서 모여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요일 마다 돌아가면서 현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 헤노코에서 만난 후미코 할머니는 오키나와 전쟁을 겪으신 분이였다. 전쟁 때 물이 부족해 피를 마시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공사 차량을 혼자서 온몸으로 막아내시는 분이고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눈인사를 나누었다.

1995년 주일미군의 12살 소녀에 대한 성폭행사건으로 촉발된 미군기지 반환 운동은 당시 미국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후텐마와 나하군항 그리고 다카에 훈련장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하지만, 미국은 다카에 훈련장의 22개 헬리패드 중 7개를 반환하는 대신 6개의 대체지를 요구한다. 다카에 주민들의 터전이기도 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 다카에에 이 같은 사업이 강행되는 이유에 대해 다카에주민들은 오스프리 제작에 연관된 4000여개의 미 군수산업체들의 존재를 말한다. '꼭 팔아야 한다'는 미군 혹

은 군수기업의 욕심이 미공군도 쓸모 없다는 오스프리를 구매하게 하고 훈련하게 한다. 실제 일본정부는 최근 17대의 오스프리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미 국방부와 의회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대당 가격은 203억엔이며 총 도입액은 3800억엔, 한국돈으로 4조원에 달한다. '일본도 자기가 만든 무기로 자기가 총 맞는 날이 언젠간 올 것이다.' 다카에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다. 또 그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연을 다음 세대가 이어 받아야 한다'고도 말한다.

오키나와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날 오키나와 여성이 미군속에게 살인 당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다. 미군기지와 함께 삶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미군 범죄 들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도 수많은 미군기지들이 있으며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이나 기지 옆에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도 배우는 시간이었다. 기지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 군사주의로 인한 폐해 등 특히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애쓰는 '두레방', 미군기지 확장이전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던 대추리,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 문제를 이야기 하고 그 주변의 소음, 탄저균 문제, 마을 만들기를 진행 중인 '평택 평화센터', 한국 사회에 군대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을 비판 대응하는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미군 범죄나 미군 주둔에 따른 피해를 다루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한국에서 또 내가 사는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즐거운 고민도 생겼다.

[참가자 후기]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 참가기

김용한 (평택평화센터)



제가 일본(도쿄)을 처음 방문한 것은 1992년입니다. 당시 <PCDS>라는 단체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투쟁' 사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지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을 만났는데, 그 때만 해도, "오키나와는 일본 땅, 괌은 미국 땅"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귀국해서 여러 지역과 나라의 사례 발표 자료를 번역해 본 뒤에야, 오키나와와 괌이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일 뿐, 별도의 민족국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미군과 주일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오키나와에 있게 된 사정도 알게 됐고, 미군기지에 임대기간이 있다는 사실, 일본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땅 임자들이 '반전지주회'나 '한평반전지주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 '미군기지로 쓰이는 자기 땅을 반환' 받기 위해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 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지주들 편을 들고 있다는 사실 등등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미군기지가 있는 전국을 돌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한 것은, 저의 머릿속에서 나온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 때 오키나와 사례 보고에서 배운 덕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으면서 입만 열면 '오키나와', '오키나와'를 외치고 다니다가, 처음으로 오키나와를 방문한 것은 1996년입니다.

당시는 평택만이 아니라, 전국 미군기지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라는 연대기구를 꾸리고 느슨하게나마 전국 단위 연대운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 때 연대 기구 이름에 들어간 '미군기지 되찾기'라는 표현이 바로 오키나와 투쟁 사례에서 배운 '미군기지 반환'이었습니다.

자료로만 읽다가, 직접 방문했을 때의 첫 느낌은, 종교인들의 성지순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하 공항에서부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현민 투표 00일 전"이라고 쓴 대형 입간판들이 교차로마다, 공원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 88서울 올림픽을 홍보할 때 1년 전부터 매일 카운트 다운해 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현민 투표의 두 가지 의제가 놀라웠습니다. 'SOFA 개정과 기지 축소'! 아직도 생생한 그 때의 감동을, 오키나와 방문 직후에 정리해서 한 월간지에 기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한-오키 민중연대'(오키-칸 민슈렌타이)라는 국제연대기구를 꾸려서, 첫 번째 교류 행사로, 1997년 한국에서 43명이 '오키나와 방문단'을 꾸려 3박 4일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부터 오키나와와 한국을 번갈아 오가며, 민간 차원의 평화운동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 매항리 폭격장 폐쇄 투쟁 때는 한국과 오키나와 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도 연대를 해서 '함께

보름달을 보며 기지 없는 평화를 기원하자'는 3개국 동시 다발 집회를 갖고, 그 자리에 3개국 대표가 교차 참석하는 국제연대도 성사시켰습니다. 그 때 오키나와에 가기로 했던 저는 비행기표를 못 구해 매항리로 가서 '햇불집회'(보름은 맞았지만, 개기월식이라, 매항리 주민들이 햇불을 준비했거든요.ㅋㅋ) 사회를 보다가, 현장에서 체포, 구속당하기도 했습니다.

대추리 투쟁과 평택평화센터 설립 등 미군기지 관련 활동들을 하다가 최근에는 장애인들의 전 생애에 걸친 지원을 목표로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출자해서 만든 대구리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데, 오키나와와 교류한 지 20년이 되는 이번엔 평화기행을 다녀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오키나와 분들도 만나 보고 싶은 마음에, 편하게 한 번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정말 오랜만에 오키나와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추리 재판이 작년 6월 대법원 판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로 끝나자마자, 10년짜리 여권을 만들어 둔 것도 한몫했습니다.

사전 교육 모임 때 대추리에서 강미 단장님을 비롯한 평택평화센터 참가자들을 만나고 오키나와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예전에 죽은 줄 알았던 저의 세포들이 서서히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한국의 다양한 단체와 지역 참가자들을 만나 서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두레방에서 활동하는 분을 통해 오랜만에 두레방 소식도 듣고, 열군 회원분과도 새롭고 뜻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공식, 비공식 일정을 막론하고 5박 6일 오키나와 평화기행 내내 엄청난 활력소 역할을 해 주셨던 두 분의 웃음소리와 그 엄쳤던 리액션들이 지금까지 눈과 귀에 삼삼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문정현 신부님도 내려가 계시고, 9년을 힘겹게 싸우고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한 번도 함께 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한참 동안이나 복잡했습니다. 강정마을 분들과는 오키나와에서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느라 더 많은 사림을 가지지 못해 끝까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녁마다 뒤풀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튿날 일정을 소화하기에 힘들었을망정, 그나마 많이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카하시 상, 도미야마 상, 니시오 목사님, 시마다 목사님, 치바나 쇼이치, 이하 요이치 같은 분들을 10여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운동하고 계신 그 분들의 끈질긴 투쟁 정신에 감복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가토 상과 히로유키 상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12일 아침 캠프 슈와브 앞 헤노코 농성장을 방문했습니다. 과거 헤노코에 여러 번 갔을 때에는 바닷가 바로 옆에 농성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캠프 슈와브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 기지 공사가 시작되어 기지 정문에서 공사 차량을 저지하는 거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성장을 지키시며 안내를 해 주신 사사키 스님은 열정이 철철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오후에 파레토 시민극장에서 열린 '제39회 5.15평화행진전국결단식'에서는 난생처음 하는 경험도 해 봤습니다. 강미 단장님이 연대사를 하는 동안, 수용군과 함께 '현수막 보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1990년 처음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안 해본 '현수막 보이'를 환갑이 넘어서, 그것도 외국 나가서 처음 해 봤습니다.ㅋㅋ

13일 오전 행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 세 시간은 걷지 않았나 싶은데, 오키나와 출발 전에 비가 많이 온다느니, 스콜 시기라느니 하며 겁을 주던 강상원 소

장의 엄포와는 달리, 너무 뜨겁게 내려쬐던 오키나와 햇볕에서 자외선과 오존을 흠뻑 맞으며 '벤도' 하나 얻어먹기 위해 죽을동살동 행진을 했다했습니다. 행진 출발 직전 짧게나마 연대사를 한 것이 이튿날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갔던 다카에에서는 안바루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마침 '음악협회' 분들을 만나 그분들과 함께 신나게 노래하고 춤추던 기억이 납니다.

14일은 하루 종일 심포지움에 참가했습니다. 박석진, 강미, 김태정, 최혜영 님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사례지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통역하던 가토상이 울먹이고, 결의문 낭독하던 분도 계속 울먹여서, 괜히 저도 따라서 슬퍼했던 기억도 있군요.

15일 평화행진 때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거의 사진사 노릇만 했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행진이든 집회든 늘 느끼는 것이지만, 오키나와나 일본 본토에서는, 한국과 달리, 전경은커녕 그 흔한 교통경찰조차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리 집회 대강정마을 강문신 부녀회장님의 국제연대 발언은, 이튿날 류큐신보와 오키나와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신문에 여기저기 실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방문단 일행의 최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강정마을 분들의 성화와 등쌀 덕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후에 찾아간 화이트비치는 저도 처음 가 본 곳입니다. 드넓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미군기지가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열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몰려가 사진 찍고 해도, 누구 하나 달려와서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한국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또 한 번 열 받았습다.

송별회 때 니시오 목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 만났을 때와는 현저하게 몸이 불편해 보이는

목사님께 사정을 여쭙보니, 오스프리 배치 철회 농성
 도중 경찰들에 밀려 넘어져 다치셨고, 몇 달 동안 병
 원에 누워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천만다행입니
 다. 제주도 강정마을 투쟁 중 떨어져서 크게 다치셨던
 문정현 신부님을 부축해 업고 올라오며 엄청 울었다
 던, 강정과 도쿄와 오키나와를 넘나들며 제주 사투리
 와 일본어를 거의 토박이처럼 구사하던 '7번 성격'의
 소유자 박철순 님이 생각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작은형제회 신부님,
 수사님들과 제주 강정에서 평화센터 활동을 하고 계
 시는 신부님, 수녀님 모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나하
 공항에서 술을 빼앗기고, "큰 신부님 갖다 드릴 거였
 다."며 엄청 슬퍼하시던 김종환 삼촌, 고권일 위원장
 님, 강문신 부녀회장님 부부, 다행히 그런 강정마을 분
 들,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과 기억

강미 (평택평화센터)

이번 오키나와 평화기행은 인원이 많아 실무를 맡았던 분들과 오키나와민중연대의 활동가분들의 품이 더욱 들었습니다. 너무 애쓰고 고생하셔서 감사하단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키나와 평화기행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다른 참가자분들에게 맡기고 저에게 남는 두가지 키워드를 보고서 형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기록

전쟁과 평화의 섬, 오키나와. 미군과 일본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을 당해야 했던 오키나와 주민들의 흔적과 세세한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고, 현장으로 기록한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기행이기에 지난 기행때 들렀던 곳까지 합치면 여러 곳에서 그런 기록을 만났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미군이 밀려들어오자 공포에 몸을 숨겼던 끝내 집단자결로 이어진 아픔이 있는 '가마' 같은 곳이 곳곳에 있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지자체같은 곳에서 이런 곳을 관리하는 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관리하는 지 궁금했는데 미처 질문하지 못했네요.

그 결실로 평화자료관이 만들어졌고, 우리네 전쟁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다짐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쟁의 무엇을 기리는 지 도통 알 수 없는 용산전쟁기념관이 새삼 부끄러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지 70년이 되었으니 실제 전쟁을 경험한 주민들은 많지 않을텐데도 그런 흔적과 기억을 세심하게 남겨놓고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기록의 의미로 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니까요.

자신들의 분노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을 전하는 평화가이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또하나의 기록입

니다.

우리히메 기념장소에 갔을때도 그 주민이 직접 안내를 해주니 다가오는 느낌이 조금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또다른 의미의 '기록'을 생각해봅니다.

그런 노력들로 평화자료관도 생겼겠지요.

전쟁이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오키나와 지역의 미군기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는 주민이 바로 그 기록의 당사자들이겠지요.

가데나역의 전망대 망원경으로 미군기지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고, 헤노코 기지 건설을 감시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 사람의 움직임까지 감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의 보안이라는 이유로 실제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던거요. 망원경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금기된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땅에 지어진 미군기지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기지안의 도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기록에서 찾았습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을 기록하고, 그걸 또 몸으로 언어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많은 오키나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봅니다. 그런 기록의 힘으로 당당하게 미국에게, 그 꼭두각시 아베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기지는 필요없다. 평화의 섬을 지키겠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오나가 현지사가 기행당

시 헤노코기지 문제를 풀러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지자체장이 직접 자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를 만나러 갈 수 있는 힘을 또다시 기록에서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억

아무리 기록을 잘해도 이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자료관을 방문한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전에 방문한 날도 평일이었는데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후텐마기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공원 한편의 전망대에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평화자료관이야 우리 전쟁기념관처럼 그 상징성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망대까지는 왜 왔는지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지도교사들은 대학생들 같은 청년들이고, 미군기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오키나와의 학생들이냐고 물으니 일본본토의 학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런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들의 힘이 보태져 바로 '미군기지는 필요없으니 돌아가고, 우린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잊지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들.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달하려는 노력들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사람들.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남는 기행이었습니다.

물론 그곳도 보수단체가 와서 평화행진을 방해하는 등의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은 일도 놓치지 않으며, 주일미군사령관이 90도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합니다.

시작한 공사를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질기고 끊임없는 반대의 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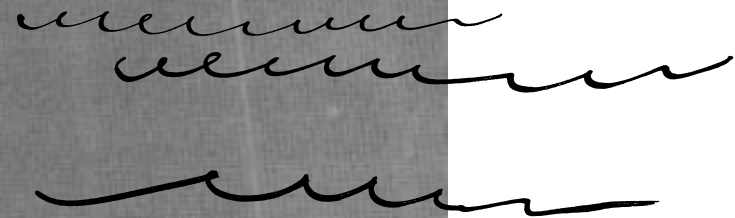
이런 기록과 기억을 이제 우리도 계속해야 할거라 숙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먼나라 오키나와 뿐 아니라 그만한 고통의 역사와 현실을 안고 살아가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같이 그것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같이 얘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에 방점을 찍고 계획을 세워보고 오키나와 만큼이나 서로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부터 이번 기행의 숙제로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록과 기억이 주었던 오키나와 평화기행의 진한 울림이 우리 스스로에게 전해지고, 남겨지고 기록되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억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심포지엄 발표문



바다 넘어 손을 잡자 - 무력(武力)으로 평화는 이룰 수 없다.

사토 마나부 (오키나와 국제대학)

1. 지금 아시아나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군사대립과 군사력으로 「분쟁해결」하는 방향에 「공기」가 급속히 흐르고 있습니다.

- 남지나해
- 동지나해
- 한반도
- 시리아
- ISIS
- 크리미아

2. 냉전이 끝나고 우리들은 군사력을 얼마 강화 해도 사람의 생활이 희생된다면 나라는 망한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냉전 이후 사반세기는 세계가 「돈 벌이는 아주 멋진 것이다」라고 생각해 군사대립보다 경제성장을 바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기간이었습니다.

3. 그것은 구소련권 동유럽이 세계시장에 편입된 후, 그리고 중국 경제가 세계시장에 들어 수출시장과 저렴한 노동력이 공급된 결과입니다. 많은 나라가 중진국이 되어 수많은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4. 그러나 세계시장은 유한하며, 새로운 저렴한 노동력으로 경제성장을 수행한 중국조차 이제부터는 지난 사반세기 같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5. 세계 경제가 전제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도 환경 자원면에 한계가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 그 속에서 경제성장이 둔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장래의 희망이 막연한 불안과 불만이 옮겨진 세계에서 현장을 유지하거나 혹은 힘있는 동안에 세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세력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일이 많은 나라에서 지나치게 불평등한 형태로 분배된 것도 많은 나라에서 불만이 높아진 이유입니다.

7. 또 국민의 경제 불만을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자기들 고투는 불공평 부정확 어딘가 외국 때문이라고 밖으로 공격을 돌리도록 하는 대단히 고전적인 정책을 많은 나라 많은 정치가들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영토란 고전적 상징이 국민을 부추기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8. 이 길 끝에는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는 대립밖에 없습니다.

9. 대립을 부추기고 힘을 높이는 정치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가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실제로는 「전쟁」은 피할 수 있다고 「가상적 적」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군사동맹에 의지하는 것을 「가상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가상적」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입니다. 이렇게 억제될 수 있던 대립이 세계대전인 것은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1. 세계에는 군비확장 경쟁을 할 여유는 없습니다. 지구온난화, 빈곤, 군과 민간을 통한 핵 위기, 우리는 낮은 군사력 중심 발상에 휘말려 있는 시간도 경제력도 없습니다.

12. 「최후에는 전쟁을 한다」라는 선택지가 전면으로 나오는 한,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 해결이 뒷전이 됩니다.

13. 우리들은 정말로 세계대전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인류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어린이 같은 결론이지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21세기는 이미 육분의 일이 지나갔습니다. 20세기와 같은 되풀이는 너무나도 슬픔입니다.

새로운 전쟁위기의 원인, '한일 군사협력'

- 한일 평화민중연대의 필요성과 과제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Civilian Military Watch)

한반도의 평화가 위태롭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한미 군당국은 제재 일변도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공격적 군사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속속 한반도에 전개되었으며 30만명이 넘는 한미연합군이 사상 최대규모의 군사연습 키리졸브를 실시했다. 이에 북한 역시 청와대와 미 본토에 대한 타격을 언급하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했으며 최근에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등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아울러,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킬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도 한미 간 협상 의제로 떠올랐다. 박근혜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시켰고 북은 이에 맞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자산의 동결과 납축 체류인원에 대한 전원 추방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보수 일각에서는 한국의 핵보유 및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심화되는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새로운 위기의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한일 군사협력의 전개양상과 이에 대한 한일 민중간 평화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1.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

지난 1월 6일, 전격 진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보유가 북한 내에서 제도화되고 국가전략으로 채택된 상태에서 핵실험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헌법 전문에 명시했다.¹⁾ 이어 2013년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 2013년 3월 31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정책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결정했다. 즉, 헌법상 명시를 통해 제도화 된 핵 보유를 국가가 실현해야 할 국가정책으로까지 구체화 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본격화 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기술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미 군당국은 그에 못 미치는 증폭핵분열탄 수준이라고 폄하했다.²⁾ 하지만, 비록 증폭핵분열탄이라 해도 기존의 핵폭탄 보다는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이며 핵무기의 실질적 배치능력과 직결된 핵탄두의 소형화에 대해서는 한미 군당국조차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 핵보유의 제도화와 국가전략화 및 핵무장능력의 강화는 북한의 핵보유를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몰고가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항상화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북핵의 제도화와 핵능력 강화는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항상화 해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정책과 핵개발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임을 각인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정부가 핵 보유를 통한 강성대국 실현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북한의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오는 5월, 36년만에 7차 조선노동당대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4차 핵실험 등으로 예견되는 미국 등의 대북제재를 내부 결속을 위한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전환시켜 정권 유지 및 강화와 연결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이를 통한 한반도 전쟁위기 심화는 그 주요한 원인으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대북 봉쇄 및 압박정책이 초래한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의 사례로 작년 10월, 한미정상이 북핵과 관련한 강경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 북한은 공격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의 우선적 핵 포

1)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내 나라'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전문에 따르면, 김정일의 업적을 평가하면서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 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켰다"고 적시해 핵 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출처-2012년 5월 31일자 프레스인 분석기사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 선언...6자회담체제 어디로?]

2) 북한의 핵무기 능력과 관련해 지난 3월 19일 세실 헤이니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북한이 이미 핵을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으며 4월 7일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이 "북한은 이미 이미 핵탄두를 소형화했고, 이를 북한이 개발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에 장착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미 군당국의 발언이 이어지자 4월 1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소형화 기술이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3)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지뢰가 폭발해 2명의 병사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8월 1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매설한 폭발 지뢰에 의한 사고라 규정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 국방위원회는 남측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남측의 모략행위라고 반발했다.

4) 2015년 8월 25일, 지뢰폭발사건으로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까지 갔던 남과 북은 긴급히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6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 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기를 요구하며 북의 유화적 제안을 일축했다. 당시는 DMZ 지뢰 폭발사건³⁾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몰렸던 남북이 극적으로 8·25합의⁴⁾를 이룸으로써 대화의 분위기를 이어가던 시점이었다. 그보다 앞선 2015년 초의 상황도 유의 깊게 읽힌다. 작년 1월,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근혜정부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후 남북관계에 다소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왔으나, 미국은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을 꺼내들며 강한 대북제재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은 호전되어 가던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으며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실시되면서 경색되기 시작했고 이어 5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면서 다시 악화되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한반도

이 같은 최근의 상황은 미국이 2011년 이래 추진해 온 자신의 세계패권유지전략인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데 남북관계의 호전이라는 변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아시아에서 발흥하는 중국을 견제 및 봉쇄하기 위한 경제·외교·군사적 전략이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군사력의 주력인 해군전력의 60% 이상을 아시아로 집중하고 있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 중인 베트남, 필리핀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북아에서는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동맹체제의 강화와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주권 주장에 항행의 자유 보장 논리로 맞서며 군사력을 전개해 군사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북한을 여전히 위협적인 국가로 존재토록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미 군사력 전개에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일본 군사력 확장과 한일 군사협력⁵⁾의 강화 - 새로운 전쟁위기의 요소

한미동맹의 대북 고립·압박정책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주요 수단으로 한 대응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을 구성한다면 최근에는 여기에 추가해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 더해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을 중심적 내용으로 하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와 아베정부의 안보법제안이 일본 의회를 통과된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 군사력의 확장과 한일 군사협력의 확대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아시아에서의 주요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동맹국들의 군사적 자산을 동원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나라다. 이는 기존에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 미일간 군사협력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지만, 아베정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확장 요구와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안의 핵심적 내용인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것이며 이는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일본 군사력의 전 세계적 확장과 맞물린다. 실제로 아베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한 이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단행했다. 일 방위성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미 해병대의 수직이착륙수송기인 오스프리의 추가 도입을 적시했었는데 5월 7일, 미국 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17대의 오스프리를 자위대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일 방위성은 아프리카지역의 다국적군사령관으로 자위대 간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은 중국 합정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오키나와 인근의 미야코섬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비부대와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는 처음으로 필리핀과 해군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확장과 한반도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확장을 위한 움직임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열었다. 즉, 한반도에서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거나 한국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일본정부가 자국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미일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미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fully respect)을 포함한 국제법,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에 입각하여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한다”고 명시해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시에 미군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군사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미군사령관이 일본 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정부의 승인없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군사력 전개와 관련해 아베정부

5) 국가간의 군사정책분야의 협력은 그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 군사교류, 군사협력, 군사동맹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군사교류 : 인적 교류와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 친선적 성격을 갖는다. 예) 사관생도간 교류, 군사당국자간 정기·비정기적 협의, 합정·항공기의 상호 방문

· 군사협력 : 유사시를 대비한 실제 공동대응과 그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수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 우발적 충돌 방지에 대한 합의, 핫 라인 설치, 인도주의적 목적을 포함한 다국간 공동 군사훈련 실시, 군사정보보호 협력정 및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

· 군사동맹 : 군사협력 보다 더욱 밀접한 군사적 관계로 공동의 행동을 중심으로 한 결함을 말한다. 예) 공동 작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연합군사연습의 실시, 당사국의 유사시 및 전쟁 상황 발생시 공동의 군사행동 실시

는 국제법적으로 북한이 한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한국정부의 동의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베정부의 안보법제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한 달 뒤인 10월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측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은 헌법상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견해를 지적하며 한국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는 일본 방위상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추가 발사를 준비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노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가시화되었다. 2015년 4월 28일, 미일 국방장관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한 직후 한국을 상대로 한 미일 3국이 참여하는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는 다음달인 5월 30일, 싱가포르 상그릴라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약칭 ‘상그릴라회의’)에서 실제화되었다. 상그릴라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간 군사적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4년여 만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병행되었는데, 양국 국방장관은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10월 일본에서 개최될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기로 하고 대해적 훈련, 한일 공동수색구조훈련(SAREX),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충돌방지를 위한 협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8월 5일, 열린 한일 국방정책실무협약에서 일본측은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이들 협정의 체결 문제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동중국해 해상에서 한일 공동수색·구조훈련을 연내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10월 18일,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사퍼레이드인 관함식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 군함이 참가하는 등 실질적이며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한일간 군사협력을 가시화했다. 이어 11월 2일, 박근혜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

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한다는 입장이 발표되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왔으며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없이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강경한 입장을 감안한다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12월 28일, 한일정부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사안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피해 당사자들과 일체의 협의조차 없이 이루어진 졸속적인 합의였다.

한일 군사협력의 배후, 미국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제이고 역사적으로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가 한국 국민에게 자행한 전쟁범죄의 문제이지만, 작년 말 한일간의 합의는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클린턴 정부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부시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마이클 그린의 증언대로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군사동맹체제의 구축을 시도해왔다.⁶⁾ 그리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시아 회귀전략의 채택 이후 그러한 요구는 더욱 강해져왔다. 미한 그리고 미일간 군사정보공유체제와 상호 군수지원체제가 법적으로 구축된 상황에서 한일간에 만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비로소 완성된 형태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체제 구축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문제에 발 목 잡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미국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나섰다. 2015년 2월 27일, 웬디 서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연구원 세미나에서 진행된 강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고 전제 한 뒤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며 역사문제와 관련한 한국과 중국정부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웬디 서먼의 발언은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

6) 마이클 그린은 클린턴정부 당시부터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의 추진을 본격화 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사건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 (collective security agreement)’을 거의 발표 직전에까지 진행했으나 한국이 마지막 순간에 발을 뺐다며 한미일 간의 ‘준 군사동맹’이 준비되고 있었음을 증언했다. 첨언하면, 2014년 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마이클 그린의 말한 한미일 집단안보에 관한 합의문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7) 미 언론 뉴욕타임즈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정부의 합의를 보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번 기념비적인 합의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사이에 가장 치우기 힘든 장애물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론을 불러왔지만 한일관계와 관련한 미국의 태도는 이후에도 다시 확인되었다. 2015년 4월 8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합의 직전에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3개국을 미래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한 뒤 "미국은 이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협력의 잠재적 이익은 과거의 긴장과 오늘날의 정치 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한일간 관계를 복원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한일간의 합의가 있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즉각적으로 환영 성명을 내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보다 확대해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⁷⁾

3. 한일 군사협력에 반대하는 한국 민중들의 투쟁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의 졸속적 합의는 한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실천해 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즉각적으로 비판 성명을 냈으며 이에 호응하는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고 광범위한 연대활동에 들어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공감한 대학생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 겨울 추위에도 두 달이 넘도록 노숙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한국 국민들의 투쟁은 그것 자체로 한일간 군사협력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안부' 합의 이후 본격화하려던 한일 군사협력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있는 1주일 후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간 군사협력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해나갈 문제라고 분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위 정부관계자 역시 "지금으로서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때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시민사회진영은 한일간 군사협력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15년 11월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와 이를 통해 한일 군사협력을 본격화 한 계기가 된 한일 정상회담시에 반대하는 일련의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이 진행되었다. 그보다 앞선 10월 20

일, 진행된 한일 국방장관회담때에도 한국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한일간 군사협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제와 관련해서도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 대표들은 시국회의와 연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 군사력의 확장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4. 한일 민중의 평화연대투쟁 - 전쟁위기 구조를 허무는 시작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정부의 졸속 합의가 한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시민사회진영의 반대로 잠시 멈추었던 한일 군사협력의 움직임은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일간의 군사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안보논리가 한국 내에서 다시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인지한 아베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한일간 군사협력의 추진에 나서고 있다. 북이 핵실험을 한 직후인 2016년 1월 7일, 기자회견에 나선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 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인 1월 8일, 나가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일간)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조하며, 조속히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한국도 적극 호응하고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말,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체결에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이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군사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는 6년만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장인 다케이 도모히사 해상막료장과 한국의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회담을 하고 한일 해군간의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는 한일간의 군사협력이 보다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완성, 신 냉전의 본격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군수지원협정 등을 통한 한일 군사협력의 제

도화와 실질적 군사협력의 강화는 한미, 미일, 한일로 구성되는 한미일 3각동맹의 트라이앵글에서 마지막 한 변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적인 번식과 확장을 수반할 것이다. 최근 미일을 중심으로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과 군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건설은 미국이 추구하는 아시아 회귀전략의 추진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그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군사동맹체의 형성은 아시아 지역에 이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군사블력의 형성을 초래해 군사적 대립과 충돌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조짐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2014년 5월, 중국의 시진핑주석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은 중러간 합동군사훈련인 '해상협력-2014'의 개막식에 나란히 참석하고 정상회담을 열었다. 정상회담에서 중러는 양국간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간섭에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때 중러 정상이 지목한 내정간섭의 주체는 미국이었다. 이어 그해 11월, 리커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회담을 갖고 “중러 양국이 아태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우려를 표한다”며 “양국이 공동안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5년 5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군이 피날레를 장식하며 연대를 과시한 중러는 이어 지중해에서 대규모 해상연합 군사연습 실시하고 동해에서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이다. 올해 8월에도 중러는 한반도 인근의 동중국해에서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을 예고 했는데 매년 8월 열리는 한미간의 연합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협력 반대투쟁은 평화와 공존의 구조를 위한 시작

한일을 중심동맹으로 하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 능력 확대 및 중러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을 형성하며 이 지역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항상적인 전쟁 위기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한국의 평화민중진영은 아베정부의 안보법제 강행에 맞서 일본 민중들이 전개해 온 강력한 저항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저항이 한일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진보적 시민사회진영이 주목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일 군사협력을 반대하는 중요한 연결지점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민중들

의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대투쟁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마지막 한 변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에서 구축되려는 신 냉전과 전쟁위기의 구조를 와해시키고 대신 평화와 공존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안보법제와 자위대, 가나가와의 기지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요코스카기지, 아츠기 기지, 요코하마 노스독 캠프 자마, 사가미하라 보급창

기모토 시게오 (모든 기지에 NO! 힘내라 가나가와)

1. 안보관련법은 2015년 9월 19일 강제 체결되어 2016년 3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이 일련의 법개정은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1-1. 2015년 8월 12일, 오키나와 우루마시 앞바다에서 미군 MH60M 헬기 블랙호크가 사전집적함 레드 클라우드에 추락사고

7월 25일, 아츠기 기지에 3대 등장 유튜브(Youtube) 「아츠기 기지의 하늘 189'15/7/25(厚木基地の空-189 '15/7/25)」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 특수작전군(나라시노 주둔지) 대원이 헬기와 사전 집적선에 탑선했다.

미국 캔터키주 포트 캠벨의 160특수작전항공연대(SOAR 통칭 나이트 스토키) 켈레미 스케이힐(1974-) "미국의 비열한 전쟁- 무인기와 특수작전부대의 암약" 49장에는 미군 MH60M 헬기 블랙호크가 투입된 '빈 라덴 살해'(2011년 파키스탄)에 관한 묘사가 있다. (오지)



○타국의 주권을 무시한 작전을 되풀이하는 특수작전부대와와의 훈련은 큰 문제

1-2 캠프 자마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육상자위대 중앙즉응집단(사령부- 자마 주둔지)은 육상총대사령부(아사카 주둔지에 예정) 발족 후 폐지된다. 그 구체적인 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오래된 배치도인데, 2013년에 사령부가 아사카에서 자마로 이전되었다.

2014년 12월, 고노 카스토시 통합막료장-미 육군 총참모장 회담

육군중간의 거점을 캠프 자마에 둔다고 제안



• 섬방위 끊어짐 없이 육상자위대 전문부대 육성 2015.9.28. 0:39 일본경제신문 전자판(정리)

방위성은 일본의 섬들이 무력공격을 당할 사태에 대비한 체제를 급히 만들 방침이다. 섬 상륙, 탈환작전을 맡는 전문부대 대원을 급히 육성하기 위해 2016년도 말에 교육대를 발족한다. 2017년도 말에는 일미 육상부대의 운용을 통괄하는 공동사령부를 가나가와현에 설치한다.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로 영해침입을 되풀이하는 중국에 대해 억지력을 강화할 목적이 있다.

○고노 제안과 일본경제신문 보도의 모순

미육군에 수륙양용전부대는 없다. 모두 해병대 조직. '육상부대 운용을 통괄하는 공동사령부'를 만들어도 섬방위작전의 지휘를 할 수 없다.

• 육상자위대 편성 예정 - 방위성의 공식 발표는 없다.

아래는 위키백과에 게재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다고 예상.

육상총대 사령부 및 사령부 부대 - (사령부 아사카 주둔지)

북부방면대 - (총감부: 삿포로 주둔지)

동북방면대 - (총감부: 센다이 주둔지)

동부방면대 - (총감부: 아사카 주둔지)

(육상총대 직할부대)

수륙기동대 나가사키현 아이노우라 주둔지 서부방면 보통과연대를 중심으로 평성 3000명 규모

제1공수단 치바현 나라시노

제1헬기단 치바현 기사라즈

중앙즉응연대 치바현 나라시노

중앙특수무기방위대 사이타마현 오미야 (과학전 부대)

대특수무기위생대

국제활동교육대 시즈오카현 고마카도

중앙정보대 방위상 직할부대에서 육상총대 산하부대로 평성 변경

1-2. 오스프리 배치관련

요코다기지의 오스프리 특수작전비행부대는 가데나기지의 제353특수작전군 산하에 들어간다.

성조기 신문(2016년 1월 16일)은 요코다 기지에 배치되는 오스프리에 관해 기사를 실었다.

육상자위대 기사라즈 주둔지(전은 해군 기사라즈 항공대 1938-)는 운용 실적이 없는 일미 공동사용 기지

후지중공이 MV22 수리업무를 낙찰

1-3. 격증하는 일미 공동훈련, 다국간 훈련

림피스 편집부가 보낸 사진이 밀하는 것 2015년 12월 19일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한 이지스함 기리시마(DDG174)가 화이트비치에 정박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말하면 11월 해상자위대 연습 (1년에 1번의 대연습) 후에는 해상자위대 함선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2015년 신가이드라인 '3강화된 동맹내 조정' (정리)

지침 아래 실효적인 두 국가간 협력을 위해 평시로부터 긴급사태까지 일미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 그리고 정책면 및 운용면의 정확한 조정을 할 필요가 생긴다.

1997년 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일미통합연습 실시해역은 계속 서쪽으로 '큐슈 서방해역'

함모전투군과의 훈련을 증가시키는 해상자위대 - 이러한 자위대 모습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

= 미합동훈련에 온 핵항모 스테니스가 해상자위대 호위함(구축함) '사미다레'와 같이 훈련

= 거의 남중국해의 공동순찰에 가까운 훈련. 자위대법 개악에 따라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확대된 자위대 훈련 페르시아만에서 소해훈련 벌써 4번째

해상막료감부 2016.2.24. 미국 주최 제4회 국제소해훈련 참가에 관하여

1. 목적 미국 주최 다국간 소해훈련에 참가함으로써 기량의 향상과 참가국의 상호이해와 신뢰강화를 도모한다.

2. 파견예정기간 2월 26일~6월 7일

(훈련기간 4월 4일~4월 26일)

3. 장소 바레인

4. 파견부대 소해모함 '우라가' 소해정 '가카시마' 인원 약 180명

5. 주요훈련항목 소해훈련 및 잠수훈련

6. 기타 본 훈련은 4번째이며 일본은 매년 참가하고 있다.

= 정말로 소해훈련만? 소해모함 갑판위에 늘어놓은 기뢰. 소해모함은 기뢰부설함이기도 하다.

해상막료감부 2016.3.15. 평성 27년도 외양연습항해(비행)에 관하여

1.목적 초급자위관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과 동시에 간부자위관으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고 방문국과의 유호친선을 도모한다.

2. 기간 3월 19일~4월 27일

3. 참가부대 등

(1) 지휘관

(2) 파견 함정 호위함 '아리아케', '세토시리' 연습 잠수함 '오야시오'

(3) 인원 제68기 비행간부후보생 과정수료자 55명(그 중 여자 2명)을 포함하여 약 500명



4. 방문국(기항지) 필리핀(수빅), 베트남(캄란 만)

해상막료감부 2016.1.20. (알림) 평성 27년도 제1회 호위대군 미국파견훈련 (괘방면) 실시에 관하여

1. 목적 미해군의 협력을 받아 괘방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 즉응태세를 확립 하는 것과 동시에 호위대군의 전술기량 및 부대운용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2. 기간 함정부대 1월 9일~1월 30일

항공부대 1월 18일~1월 24일

3. 장소 일본에서 괘에 이르는 해공역

4. 파견부대

(1) 함정부대 호위함 '이나즈마', 호위함 '사미다레', 호위함 '이세', 호위함 '기 리사메', 호위함 '수주쓰키', 호위함 '시마카제', 호위함 '초카이' 인원 약 1500명

(2) 항공부대 항공기 UP-3D 1기 인원 약 20명

5. 참가국 일본 미국

6. 주요훈련항목 해상훈련

해상막료감부 2016.3.7. (알림) 평성 27년도 제2회 호위대 미국파견훈련 (괘방 면) 실시에 관하여

1. 목적 미해군의 협력을 받아 괘방면에서 해상훈련을 실시, 호위대군의 전술 기량 및 부대운용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2. 기간 2월 28일~3월 20일

3. 장소 일본에서 괘에 이르는 해공역

4. 파견부대 호위함 '하루사메', 호위함 '구라마', 호위함 '아마기리', 호위함 '기리시마' 인원 약 900명

5. 참가국 일본 미국

6. 주요훈련항목 대공전훈련, 대잠수전훈련, 수상전훈련

해상 막료감부 2016.4.5. (알림) 인도네시아 해군 주최 다국간 공동훈련 '코모 도 2016' 및 인도네시아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에 관하여

1. 목적 (1) 인도네시아 해군 주최 다국간 공동훈련 '코모도 2016'

(2) 인도네시아 해군 국제관함식

2. 기간 4월 12일~16일

3. 장소 인도네시아공화국 바다 주변 해공역

4. 파견문대 호위함 '이세' 인원 약 360명

5. 주요훈련항목 수색 구난훈련, 지휘소훈련, 타상훈련

2. 아베수상의 강제적인 방법은 정부와 방위성, 자위대 내에도 여러 가지 알력을 가져왔다.

자위대학교 졸업생 입관 거부자 47명. 작년에 비해 2배

자위대 응모자 20% 감소

3. PKO법 '즉각경호'는 실시 연장되었다. NGO에는 남수단으로 도항이 금지되 어 있다.

4. 고속페리 승무원을 예비자위관보로 채용하려고 하는 방위성

전일본해원조합의 강력한 반대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수송력 확보가 불가결. 주목 못 받았던 민간선박의 이용.

육상막료감부 '이라크 인도 부흥 지원 행동사'의 기술 2016년 1월 16일(생략) 예비자위관보 제도 2001년 발족. 2002년부터 육상자위대가 채용

= 민간 페리 '하쿠오우'(신일본페리 소유)를 방위성이 연간 계약

전장 195.5m/ 전폭 25m / 총톤수 17,345톤

쿠마모토 진해에도 출동

해상자위관이 페리와 화물선을 운전 못한다.

5. 무기수출의 확대 - 호주로의 잠수함 수출은 실패

아사히 신문(2016.2.5)은 호주로의 잠수함 수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실었다.

호주에 미-호-일 동맹 강황에 대한 신중론도

호주 자원수출 상대국으로 중국의 존재도 큰 위치

6. 예비자위관보란 육자에서 해자로 확대 노리는 아베 정권

교육훈련초집에 응초하는 의무만이 있으며 교육훈련초집 수당이 지급된다.



예비자위관보 제도는 평성 13년(2001년)에 창설되어 평성 14년도(2002년도)부터 육상자위대가 채용. 예비자위관보에는 계급이 없고 관직명으로 불린다.

■ 현재

선박 운항에 필요한 1등~3등 항해사, 1등~3등 기관사 자격은 없다.

자격면허 실무경력일람(예비자위관보 모집요강 <평성 23년도>으로부터 발취) (생략)

훈련일수는 2년간에 합계 10일. 훈련내용은 일반공모에 비해 적지만 기본훈련으로부터 사격훈련까지 최소로 필요한 것이 실시된다.

예비자위관보는 자위대법 제53조 및 자위대법 시행규칙 제41조 3에 따라 입대시 다음과 같은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저는 예비자위관의 책무를 자각하며 항상 절조를 키우며 심신을 단련하고 교육훈련 초집에 응하여 전심 교육훈련에 힘쓰는 것을 맹세합니다.’

방위국 내에 설치된 ‘방위력의 인적 측면에 대한 발본적 개혁에 관한 검토회’가 평성 19년(2007년)에 제출한 ‘방위력의 인적 측면에 대한 발본적 개혁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검토과제로 특히 의료, 어학, 정보통신 등 특수 기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예비자위관보 제도의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로의 도입도 검토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가 발표한 평성 14년 예비자위관보 모집 채용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모집한 인원

구분/방면대	북부방면대	동북방면대	동부방면대	중부방면대	서부방면대	5방면대합계
일반	약 20명	약 20명	약 100명	약 100명	약 20명	약 260명
기능	약간	약간	약 20명	약 20명	약간	약 40명

7. 짓밟히는 자위관의 인권과 재판투쟁

자위대는 결코 엄격한 규율로 유지된 조직이 아니다. 하급대원의 인권은 아주 쉽게 무시된다.

홋카이도 여자자위관 인권소송

하마마쓰 항공자위대 인권재판 쿠웨이트에 파견된 대원에 대해 귀국 후 상사가 ‘왕따’ 생명의 물방울 재판 신격투 도입에 의한 ‘훈련사’

다치카제 재판 ‘왕따’, 폭행, 공갈로 자살에 몰린 사건 2014년 4월 판결

다치카제 재판의 항소심 판결

3. 쟁점(2) 피고소인 국가의 책임에 대하여 (생략)

자위대원 자살자수 추이

연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공군자위대(?)	사무관	합계
1994	38	6	9	8	61
1995	27	13	4	5	49
1996	26	17	9	5	57
1997	44	11	6	5	66
1998	46	17	12	4	79
1999	36	17	9	3	65
2000	43	16	14	8	81
2001	44	8	7	5	64
2002	50	15	13	7	85
2003	48	17	10	6	81
2004	64	16	14	6	100
2005	64	15	14	8	101
2006	65	19	9	8	101
2007	48	23	12	6	89
2008	51	16	9	7	83
2009	53	15	12	6	86
2010	55	10	12	6	83
2011	49	14	15	8	86
2012	52	7	20	4	83
2013	47	16	13	6	82
2014	43	12	11	3	69
합계	993	300	234	124	1,651

아베수상 고향의 대선배, 다나카 기이치의 말 ‘국민의 지지없는 군대는 너무 열악하다’

한국 미군기지를 둘러싼 쟁점

강 미(평택평화센터 운영위원)



1. 주한미군 불법적인 탄저균 반입, 실험, 훈련

2015년 5월 27일 미 국방부의 기자회견을 통해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오랜 기간 생물무기 실험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저균과 같은 위험물질 반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관계자들조차 모르게 진행되었고 시민사회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및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이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험과 훈련은 중단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주요경과]

- 미 국방부는 2015년 4월 24일 탄저균 샘플을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오산 미 공군기지(Osan Air Base)로 발송하였다.

- 오산 미 공군기지 관계자는 탄저균 샘플을 받아 5월 20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실험을 하였다.

-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실험은 2013년 6월부터 진행해온 JUPITR(Joint United States Forces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의 약자로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첫째, 생물감시포탈(BSP)로 생물무기를 감시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기구를 확립하는 것이고, 둘째, 생물식별능력세트(BICS) 개발로 전장에서 휴대장치나 이동분석장비를 통해 세균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며 셋째, 환경감시평가(AED)로 개발한 탐지장비가 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를 알아보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진단장비를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기경보로 모든 생화학 적 정보를 하나의 통합감지 및 경보시스템으로 집중해 생물무기 관련 대응을 높인다는 것이다.

- 5월 22일 오산미공군기지로 발송한 것과 동일한 샘플을 받은 한 미국 내 민간연구소가 실험과정에서 활성화된 탄저균임을 확인하고, 미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였고 5월 27일 미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4일 발송한 샘플이 활성화된 탄저균임을 인정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에 샘플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로인해 22명이 탄저균에 노출되어 예방조치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 7월 24일 미 국방부는 자체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활성화된 탄저균샘플 발송사건을 검토한 결과 그 누구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면서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탄저균을 비활성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 8월 6일 <한미 합동실무단>이 오산미공군기지에 대한 현장기술평가를 실시하고 4개월만인 12월 17일 운영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한미합동실무단의 보고서를 요약하면 첫째, 미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평택 오산미공군기지까지의 배송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평택 오산미공군 기지에는 살아있는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까지 반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15차례 진행되었다 셋째, 북한이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생물무기실험을 중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향후 위험물질 반입에 대해 한미



그림 2014년 3월 미국 육군이 자체 웹사이트에 '에지우드 화학 생물학 센터'(ECBC)의 주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실은 생물학전 탐지 장치 사진.



[그림] 오산 미공군기지앞 1인시위가 300일을 넘고있다

SOFA운영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에는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협의하겠다는 내용이였다.

- 한미합동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는 첫째, 대한민국 법률(감염병예방방법과 생화학무기법)과 1972년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둘째, 생물무기에는 방어용과 공격용의 구분은 없으며 생물무기 실험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군비경쟁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탄저균이 살포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유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언제든지 공격용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SOFA운영절차 개선만으로는 탄저균 반입과 같은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해소할 수 없다. 한미당국은 한미SOFA협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SOFA협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미SOFA협정의 조항들은 주한미군과 시설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이 조항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법을 적용해야 마땅하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불법행위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며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 서울과 평택을 중심으로 1인시위와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5대 요구(한미SOFA협정 전면개정, 모든 생물무기 폐기, 실험실 폐쇄, 오바마 미대 통령사과, 책임자 처벌)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사드 배치로 요동치는 동북아시아

북한의 4차 핵개발, 그리고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수면아래에 있던 사드배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2016년 3월 6일 사드배치협의를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다.

- 사드는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MD:Missile Defence) 중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말하며 가상의 국가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인공위성과 지상 레이더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 그러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미 의회 조사보고서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에는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은 크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

다.

-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가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로 최근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외교부장은 "한국에 이 시스템이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미국과 한국이 상의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금 북한이 벌이고 있는 행동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협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 결국 북핵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사드가 배치되면 한-미-일 동맹의 성격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의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동맹으로의 전환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은 군비경쟁이 격화됨과 동시에 일상적인 긴장과 전쟁위협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 사드배치 유력후보지로 경기도 평택, 전라북도 군산, 강원도 원주, 경상도 대구가 거론되고 있으나 레이더 설치를 위해 광활한 면적의 공여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레이더에서 나오는 막대한 전자파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알려져 있어 모든 지역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3. 반환미군기지를 통해본 미군기지오염

- 주한미군기지의 재배치 사업은 서울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사령부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 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과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미 2사단 부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으로 추진되고 있다.

- 129개의 미군기지중에 49개는 계속 사용이 되고, 80개는 반환대상 기지이다. 이미 반환된 곳은 54개이고, 현재 반환 예정이거나 협상 중인 곳은 26개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기지들이 반환될 때마다 어김없이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정화 책임, 향후 개발 문제에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한미SOFA협정 상 '주한미군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무의미한 조항과 2001년에 체결된 SOFA의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다고 알려진'(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 환경오염을 의미하는 KISE의 기

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 주한미군기지의 대부분이 기름과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 기지의 용도(수송, 항공, 탄약, 훈련, 주거, 발전소 등)에 따라 오염 물질의 종류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법의 허용기준치의 수십 배, 수백 배를 초과한 오염이 자주 확인된다. 전체 면적의 42%가 오염된 동두천의 미군기지 캠프캐슬(Camp Castle)은 작년 3월 오염된 상태로 반환 받았다. 유류오염 분석 항목인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500mg/kg)의 127배를 초과할 정도였다. 이곳에 1년만에 대학교가 조성되어 곧 4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렇듯 반환된 미군기지가 학교, 공원 등으로 개발되면서 오염이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평상시에 주한미군이 어떻게 기지 내 환경 오염을 관리하고 예방하는지 한국 정부는 확인하지 못한다. 한미SOFA의 환경양해각서 상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절차' 조항에 따르면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명령계통을 통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통보 후 48시간 내에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있지만 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해도 기지 바깥으로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으면 미군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 환경문제에 대해 거론하면 한미 동맹을 운운하며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 환경 오염의 원인자임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무장한 주한미군으로 인해 피해는 애꿎은 한국 국민들의 몫이 되어 버리고 있다.

4. 한미전쟁훈련

- 최근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을 폐쇄되었고 모든 기업은 철수하였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는 벼랑 끝에 서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 한미는 키리졸브훈련과 독수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은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관계가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택포기, 후 평화협정체결로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 UN안보리결의안 채택과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미군기지, 기지촌, 여성들 그리고 두레방

김태정(두레방 활동가)



미군기지, 기지촌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 들어 온 미군들은 전쟁 후에도 계속 해서 한국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군기지 주변에 미군들을 위한 구멍가게부터 이발소, 클럽 등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기지촌이라 부른다. 모든 군부대 앞에 형성된 마을을 기지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특별히 미군기지 앞에 미군들을 위해 생긴 마을만을 기지촌이라 말한다.

그리고 여성들

생계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에 모였다. 그리고 그 안엔 기지촌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가족을 위해 거리에 나온, 전쟁고아, 직업소개소의 기망으로 기지촌으로 오게 되면서 기지촌여성이 되었다. 여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지촌 왔는지, 클럽에 온 날로 빛을 안고 클럽을 빠져 나갈 수 없었다. 초저녁부터 문을 여는 클럽은 새벽이 되도록 열려 있었다. 여성들은 업주의 강요에 못 이겨 하루에도 열 명이 넘는 남성들을 상대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빛은 계속 있었다. 그리고 업주는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다른 업소로 여성의 몸값을 받고 판다. 그러면 여성은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 또 빛으로 올라간다. 도망을 가는 여성들은 찾아내서 다시 기지촌으로 오게 된다. 이런 생활로 인해 여성들은 마약류의 약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미군에 의해든 업주의 권유든 계속 약을 끊지 못 하는 환경에 놓인다.

여성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업주의 폭력과 미군들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었다. 어디서든 여성들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었고, 심할 경우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상황을 감당하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여성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환경에 계속 노출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철저한 기지촌 관리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군들은 자유롭게 기지 밖에서 유흥을 즐기게 되었고, 미군당국은 한국정부에 기지촌의 성병관리 지원 요청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그를 위해 성병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령⁸⁾을 만들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였다.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⁹⁾이 제정되어 윤락행위가 금지되었지만, 특정윤락지역을 지정하여 경찰에 등록하게 하고 성매매 단속을 면제하였다. 104개의 특정윤락지역이 지정되었고, 그 중 경기도에 61개소가 있었다. 즉 기지촌이 있는 경기도가 특정윤락지역이었고 여성들은 피해를 구제 받기보다는 철저한 성병관리를 받아, 미군을 위한 깨끗한 신체를 대기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여성들은 일주에 두 번 성병검진을 받아야 했다. 검진 후 성병이 없으면 패스했다라는 의미로 검진증에 표시를 해준다. 성병이 있을 때에는 성병관리소로 옮겨져 성병이 나올 때까지 감옥 같은 그곳에서 지내야 했다. 그런데 꼭 성병이 있을 때에만 성병관리소를 가는 것은 아니다. 컨택¹⁰⁾, 토벌¹¹⁾로 성병이 없이도 성병관리소에 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성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정부는 여성들에게 달리를 버는 애국자라

8) 전염병예방법과 동 시행령(1957년); 법령안에 성병검진 대상과 주기가 나타나있고 다른 유흥업소에 일하는 여성보다 기지촌에 일하는 여성들이 성병검진 횟수가 많았다.

9)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년);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10) 컨택: 미군이 지목한 여성에게서 성병을 옮겼다고 신고하는 것

11) 토벌: (여성들의증언에따르면)보건소시청,경찰 합동으로 무작위로 검진증이 없는 여성이거나 의심되는 여성을 단속하여 성병관리소에 보낸다.

12) E-6비자: E-6-1(예술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E-6-2(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문제가 되고 있는 비자/ E-6-3(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13) VTR(video test recording): 노래 실력평가를 위한 영상물

고 칭하고 미군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영어를 가르치는 등의 정신교육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그 당시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은 무시한 채 더 나아가 성병관리로 여성들의 몸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달리별리로 이용하였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과거 기지촌 한국여성들은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그 증거로 여러 법령 만들어 여성을 등록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보라는 이름으로 미군 사이에서의 폭력과 살인에 조용히 희생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행정적인 관리와 묵인은 마땅히 여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기지촌에서 생활해온 한국 여성들은 가난과 질병을 안고 여전히 기지촌에서 살아가고 있다. 정부는 성병검진과 애국교육을 통해 여성들의 몸을 관리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여러 학자들과 변호사들, 관련 여성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구성하여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연구하고 여성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만들도록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6월 25일 기지촌 여성 122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변호인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관리했던 실태와 회의록 등을 찾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등록 대장 등을 요청했으나 그들은 현재 갖고 있는 게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일곱 번째 재판을 하였고, 과거에 성병 관리 업무를 했던 공무원들과 기지촌 여성들이 증언하는 재판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기지촌은 한국 여성에서 외국인 여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술흥행비자 즉 E-6¹²⁾ 비자로 러시아, 필리핀 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되었다. 2003년 한국정부는 러시아에 E-6 비자를 중단하였고 그 결과 이 비자로 들어오는 러시아 여성은 거의 없고, 필리핀 여성들이 현재까지 기지촌으로 들어오고 있다.

외국여성들은 자국 내 기획사에서 노래연습을 하고 비자를 받기 위한 VTR¹³⁾을 만들어 한국의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허가 서류를 받게 되면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가서 담당 직원에게 오디션을 보고 비자를 받는다. 노

래를 부르는 가수로서 비자를 받은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接客원 역할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수많은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났고 한국 정부도 이런 실정을 알고 있을 것인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과 변호사들이 모여 E-6-2 비자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E-6-2 비자 네트워크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외국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례들도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두레방의 활동

1986년 의정부 기지촌에서 활동을 시작한 두레방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다. 기지촌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왔다. 그들이 처한 인권 유린 실태를 세상에 알리는 일뿐만 아니라, 미술치료와 상담을 통해 여성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국 여성들과 필리핀 여성들이 두레방에서 자매애를 만들어왔다.

기지촌은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마을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군이 주둔한 곳이라면 한국의 기지촌과 같은 특수한 마을이 있을 것이다. 한국과 다른 상황이겠지만 국제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같이 고민 하려면 한다. 또한 군사 안보에 희생되어온 여성들의 인권과 목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미군 X밴드 배치 반대투쟁 보고

오완 무네노리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긴키/교토 연합회 대표 간사)



미군 X밴드 레이더 배치 반대투쟁의 경위

A. 미군 MD 전략으로서 교토부·교탄고시로의 X밴드 레이더 배치

2012년 8월 오바마-노다 회담에서 일본 배치 합의

2013년 2월 오바마-아베 회담에서 교가미사키 자위대분둔기지로의 배치 합의

의

2014년 5월 건설공사 착공

2014년 10월 X밴드 레이더 배치

2014년 12월 X밴드 레이더 운용 시작

2015년 1월~2016년 4월 소음문제, 미군에 의한 교통사고 다발

2016년 4월 24일 교탄고 시장 선거 현직 낙선. 새 시장, 일미지위협정에 대해

작지만 대응하기 시작

B. 투쟁의 기초

1. 지방 당사자들이 주권자로서 일어나는 것을 지원

현지 개별 방문 활동(월 2회), 신문지 전단과 현지 투쟁, 일미지위협정 현지 학습회

2. 기지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의한 실력반대투쟁

3. X밴드 레이더 배치와 그 결과에 대한 운동(모금과 협력자의 땅 제공으로 간판 설치) 교토부청(지사), 교탄고시(시장과 시의회), '긴키연합회'로서 중부방위국에 항의행동, 교토시내에서 가두 선전활동과 X밴드 레이더 기지 철거 보고집회

'긴키연합회' 결성과 전국 연락망

C.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본정부의 전쟁정책 강화에 대한 반대활동

1. 동아시아 민중들과의 국제 연대행동을 추구

2. 팸플릿, 리플릿, 회보, 뉴스, 전단지, 현지학습회 등 선전활동

D. 미군기지 설치기준에 위반하는 X밴드 레이더 기지의 문제점 (주택과의 거리)

1. 방음 차폐물과 방지막 등으로 노력했지만 소음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2. 교통사고가 다발하여 피해자가 할 수 없이 단념하는 경우도 있다.

3. 교탄고 국정공원으로의 풍경, 환경이 파괴되어 있다.

4. 각종 집회, 시위에 참가하여 X밴드 철거, 사드 미사일 배치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E. 지방주민의 움직임

1. 당초의 불안과 운용후의 사고 다발에 '걱정하는 모임' 이외의 표면화된 행동은 없다.

2. 2015년 11월 나카타니 방위상 방문에 항의하여 지방주민 약 30명이 기지 게이트 앞에서 항의행동을 시작.

3. '교토연합회'에 공감하는 지방 사람들이 늘어 헤노코 게이트 앞 투쟁에 참가.

투쟁의 도달점과 과제의 해결 - 6.5 교탄고 현지투쟁

질적인 변화는 3가지이다. 하나는 작년 전쟁법 반대투쟁 가운데 전국적으로 '한부로 결정하지 마라. 우리들이 주권자다.'라는 인민의 독립과 연대가 일본에서 탄생했다.

2번째는 올해 3월 7일~4월 30일까지 실시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들을 중심으로 반대투쟁이 조직되어 집회와 행진이 감행되었다. 연합회 결성 이래 걸여온 국제주의의 실천이었다.

3번째는 X밴드 레이더 반대투쟁이 주민의 쫓겨난 것에 대해 방위성, 교탄고시는 지방자치체를 통해 '교토연합회'와 '걱정하는 모임'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렸다. 주민들에 침투한 그러한 헛소문을 극복하는 것이 우

리들의 과제다.

이러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국, 오키나와, 일본 전국 사람들과 같이 6월 5일 현지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

북한 적대정책을 이용한 일본의 전쟁정책에 항의한다.

지금 선진국, 신흥국을 불문하고 주권국가는 역사적인 구조 불황 아래 자본간의 국제경쟁에 직면하여 계급지배 파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한 계급지배의 국내적인 모순은 대외정책으로 은폐하고 또 국책 수행에 대외정책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각국의 이익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를 보면 그간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과 핵개발에 대해 일본정부, 미디어는 '무모한 북한의 도발'이라는 선전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 국민은 IS국과 함께 '북한은 세계 마지막 악의 추축'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좋다는 풍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한 북한 적대정책이야말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과 전쟁법 강행이며, 조선인 열사의 혐오발언과 재일조선인 학교 학생에 대한 괴롭힘과 인권침해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에 의한 '재일조선인은 일본에 있는 적국인'이라는 취급이 있다.

북한 열사와 적국 취급은 메이지유신에 의한 일본 근대사와 함께 시작되어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침략전쟁으로써 진행한 일본 지배층의 상투적인 수단이었다.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배외수법과 똑같다. 그리고 배외주의에 패배한 일본, 독일 인민들이 가해와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위험한 북한의 동향,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법,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국민은 '북한이나 중국에 대응하는 역지력'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한다'며 X밴드 레이더와 헤노코 신기지건설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 유도되어 있다.

우리들은 한미합동 반대훈련을 진행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입한 '조선은 악'이란 생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답은 아시아 민중과의 국제연대만이 해결책이라고 호소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주일·오키나와 주둔 미군 참가 반대, 일본 정부에 항의한다.

작년 말 한일 양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합의했다. 당사자인 위안부 피

해자를 배제하여 성사된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일 양 국민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한일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 회복이나 생활조건 개정 등은 핑계에 불과하며 양 정부의 목적은 한일 자본가들의 경제교류 촉진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층 더 촉진하는 것이었다.

올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예년을 넘어 사상 최대규모이다. 한국군 30만명, 미군 1만천명, 최신무기와 전략부대를 투입한 대규모 훈련이다. 게다가 김정은 제1비서의 참수와 북한의 국가전복을 연습하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말에서 올해초에 걸쳐 '자위적으로' 인공수정과 수폭실험을 강행했다. 이 움직임을 '폭거'로 삼아 미일, 한미 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제재와 인권에 관한 경제·사회적 제재 결의를 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조선 적대정책의 무대가 되어 있다. UN이 해야 하는 일은 UN 헌장 위반의 한미군사훈련 중지 권고와 북일 북미간의 평화조약 체결이자, 그것을 조건으로 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금지이다. 그것이야말로 동아시아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다.

우리들은 먼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그 후 북한의 수폭실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폭이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비확장이 북한의 주권과 인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북한 인민이 국제주의에 따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는 우리들과 행동을 같이 하자고 호소해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에서 오스프리와 해병대, 가데나 기지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요코스카 해군기지에서 핵항모, 핵잠수함, 사세보 기지에서 강습약륙함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사실상 합동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법제관련법(전쟁법)이 통과한 후의 이 군사훈련은 한미일, 특히 아베내각의 전쟁 정책이 앞으로 한층 더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일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북한 적대정책이 받치고 있다.

현재,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공유하는 전략으로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1949년, 중국사회주의혁명의 성공과 1950년, '조선내전'에 개입한 후 한결같이 북한 중국 적대정책을 취해왔다. (과거에는 소련을 포함해서 가상적국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현재, 중미관계는 중미 국교정상화 이후 경제가 상호침투되어 군사면에 있어도 공동연습부터 핫라인 설치까지 하면서 우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자본과 제품이 중국으로 진출했고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이외에는 핵심적인 문제는 특별히 없다.

북미 관계는 1953년에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정전)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북일관계는 아직까지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국익을 위협하는 이해관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미일의 대 중국, 특히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인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며, 이것에 대한 역지력을 높인다는 방편으로 북한·일·중·미 등 각 국가가 군비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일이 북한을 적국으로 삼아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봉쇄정책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이 대항하는 군

비확장의 이유이다. 북한의 군비확장을 이유로 미군 제7함대는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화하며, 요코타기지에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를 두고 X밴드 레이더 배치나 헤노코 매립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미일은 1950년에 시작된 한국 전쟁 이후, 분단된 북한을 군사적·경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북한은 자위를 위한 국방의 근대화, 이것이 초래하는 빈곤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시점으로 보면 한국도 미일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할 수 있다. 미일이야말로 동아시아 긴장격화의 공모자들이다.

이러한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책동을 용서하면 안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대정책이야말로 주일,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가 있는 이유이다.

헤노코 매립 저지, X밴드레이더 철거, 북한 적대정책을 중지하라.

동아시아가 평화로워지면, 미일안보와 오키나와의 기지는 필요없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저지하면 동아시아의 긴장관계가 풀리고, X밴드 레이더도 불필요해지며, 일본정부의 전쟁정책을 저지할 수 있다. 이것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X밴드 레이더 철거는 헤노코 매립 저지, 북한 적대정책 철폐와 밀접하다.

북한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동아시아의 긴장완화가 실현된다면, X밴드 레이더 배치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미일안보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존재 의의도 없어진다. 또한 헤노코 매립을 저지했다고 한들, 일본 정부의 북한 적대정책이 계속된다면 일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새로운 기지 제공과 기지 건설을 막을 수 없다. 또 북한 적대정책을 완화시켜도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 진행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 실현은 어렵다.

그래서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와 X밴드 레이더 기지 철거,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 전환의 투쟁은 동아시아 민중의 국제연대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오키나와의 굴욕' '북한 적대정책' 철폐는 동아시아 인민의 공동 과제다.

북한 적대정책은 일본 정부의 대외정책의 생명선이자 헤노코 매립, X밴드 레이더 배치의 근거이다. 헌법 개약을 진행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북한 적대정책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자위대)에 미군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고, 동아시아의 MD(미사일방위) 전략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고, 그 결과 북한을 핵과 미사일 탄도탄 개발에 더욱 몰아넣었다. 그리고 북

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실험이 '북한은 악의 추축'이라는 선전거리가 되어, 일본정부의 개헌작업이 국민합의로 진행되게 된다.

X밴드 레이더기지 철거, 헤노코 매립 저지, 아베 내각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적대정책과 한미일 합동 군사연습에 반대하며, 새로 예정되어 있는 사드 미사일 배치 등 동아시아 미사일 방위 전략을 동아시아의 민중이 연대해서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배치된 요격탄도미사일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와 차재식 패트리엇 PAC-3가 주된 것이나, 미국 의회나 전문가들이 양쪽의 성능에 대해 의문을 표명했다. 특히 PAC-3는 발사 고도가 15km로 낮기 때문에, 명중해도 당사국에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은 발사 고도가 150km인 사드 미사일이다. 이 미사일의 정밀도는 불확실하지만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이기엔 충분한 위력을 발휘한다. 일본이나 한국에의 사드 미사일 배치를 절대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한·오키·일 연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일상속에서 국제연대를 실천하자

우리 '긴키/교토 연락회'와 한국의 친구들이 같은 자리에서 하는 심포지움은 4번째이다.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는 것은 국제주의를 깊게 하는 데에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 교토에서 7명이 참가하러 왔다.

하지만 보고와 토론할 시간은 짧고 통역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각자 현장에 돌아간 후에도 항상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국제연대 없는 투쟁은 패배했고 만약 승리한 사례가 있어도 국내주의(一國主義)의 한계가 '일그러짐'을 나타내며 고투하고 있다. 힘을 모아서 국제주의를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통신센터'(가칭) 같은 것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을 오키나와”로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저지한다.

아라카키 토쿠쇼 (오키나와현 나카구스쿠촌 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모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후텐마 기지가 있는 기노완시 바로 옆에 있는 나카구스쿠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라카키 토쿠쇼라고 합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을 오키나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 운동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키나와 말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일미 양 정부가 헤노코 주변 해역을 매립해서 새로 미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전제로는 후텐마 비행장 철거-반환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즈음에 후텐마 비행장에서 오스프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얼마전부터 그럴 듯한 정보가 있기는 했지만 그 때까지도 일본 정부는 미국 쪽에서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해서 오스프리 배치 계획을 모른 척 해왔습니다. 그 때부터 오키나와현 내 여러 단체가 주관한 오스프리 배치에 반대하는 항의운동이 시작되어 점점 고조되어 갔습니다.

배치계획이 명백히 발각된 2012년 9월 9일 기노완시에서 ‘오스프리 배치 반대 현민대회’라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무려 십만여명의 현민들이 대회장인 해변공원을 꽉 메웠습니다. 나중에 헤노코 바다의 매립을 허락하게 된 그 당시의 나카이마 현지사도 “현민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오스프리 배치를 절대로 반대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미 정부는 약 1개월 후인 10월 1일 후텐마기지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그날 후텐마 기지 노다케 게이트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의 머리 위에 오스프리가 날아오고 기지 내에 착륙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분노, 슬픔, 공허함, 억울함이 지금까지도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현민들은 계속해서 행동했습니다. 그 이후 현의회, 현내 모든 시정촌 읍면의 수장, 의회 의장, 주요 단체가 협동해서 오스프리 배치 반대를 표명한 건백서(건의서-옴진이)를 작성하여 그것을 가지고 도쿄에 가서 당시의 아베 수상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2013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까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한 적이 없었던 일로서 역사에 깊이 새겨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앞서서 행동하신 분이 당시 나하시장님이었던 오나가 다케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다음 2014년에 실시된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지지하는 오나가 후보가 당선되어 신기지 반대운동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현민들이 이데올로기로 싸우지 말고 오키나와의 정치성에 의거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지도자가 “을 오키나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있따라 실시된 총선거를 비롯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각 선거에서도 후텐마 지지 철거, 헤노코 신기지 반대를 주장한 많은 후보가 당선되어 여러 기회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 “올 오키나와” 방식은 현내 곳곳에서 다양하게 결실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나카구스쿠촌에서는 2015년 5월 11일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건백서 실현을 위한 나카구스쿠 주민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촌장님을 비롯해서 청년회, 여성회, 고령자회, 어린이회 등 각 단체의 대표자가 주민회의의 공동대표가 되어 한 달에 두 번씩 헤노코 게이트 앞에 다니는 무료 버스 운영이나 헤노코 바다의 사진 전시회, 다큐멘터리 영화상영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시가지 한가운데에 있는 후텐마 비행장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라서 거기서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비행기를 운용할 수가 없다. 거기 사는 기노완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이 헤노코 신기지 건설이다.”고 너무나 이상한 논리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헤노코 기지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후텐마의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소리를 국내외로 내보내고 있는 일본 정부를 치료할 약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키나와 현민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헤노코 게이트 앞에서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살마들이 입은 티셔츠에 쓰여 있는 글 “패배하지 않는 방법은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를 마음에 새겨 반드시 이길 것을 굳게 믿고 계속 싸우겠습니다.

옛날에 오키나와가 “류큐”라고 불렸던 시절에 믿음직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현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일미 정부의 억압에 맞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단결하고 연대하여 승리를 믿고 계속 싸우겠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올 오키나와” 깃발 아래 이 하늘, 바다, 땅을 우리 것으로 되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가시밭길을 돌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의는 늘 우리 편입니다. 함께 연대해서 나갑시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각각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면서 평화의 길잡이가 되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키나와 평화운동 현장에서 이어받아서 불러 온 노래가 있습니다.

“오키나와를 되돌려”라는 노래입니다. 민중운동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산신”이라는 오키나와 현악기를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노래가사]

카타키 츠치위 야부리테 / 민조쿠노 이카리니 모에루 시마 오키나와여 / 와레 라토 와레라노 소생가 치토 아세워 모테 / 마모리 소다테타 오키나와여 / 와레 라와 사케부 오키나와여 / 와리라노 모노다 와키나와와 / 오키나와오 카에세 / 오키나와니 카에세.

[가사의 뜻]

굳어진 땅을 깨뜨리고 민족의 노여움에 불탄 섬 오키나와여
우리라 우리의 조상들이 피땀을 흘려 지키고 키웠던 오키나와여
우리는 외친다 오키나와여. 오키나와는 우리의 것이다. 오키나와를 되돌려. 오키나와를 되돌려.

*올 오키나와 : 정치적인 입장을 가리지 않고 건백서 실현을 위하여 오키나와 여러 세력이 다함께 협동해서 진행하는 운동방식. 건백서의 요구는 오스프리 철수, 헤노코 신기지 건설 철회, 후텐마 비행장 철거, 세 가지로 압축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

현장투쟁 _ 제주 강정 / 글 : 최혜영



해군의 35억 원 구상권 청구. 늘어 가는 빛과 줄어드는 활동가들. 그럼에도 강정마을 주민과 강정 친구들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다.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제주 해군 기지, 갑자기 강정에 들어서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처음 구상했던 곳은 강정마을이 아니었다.

애초 후보지도 아니었던 강정마을은 2007년 3월에야 처음으로 해군기지 후보지로 검토되었다. 대상지로 결정되기 전,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설명회는 물론 입지 타당성 검토나 사전 환경성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가운데, 해군에게 설득된 일부 주민들의 주도로 2007년 4월 26일에 개최된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는 전체주민 1,900명(유권자 1,050명) 중 87명만 참석해 정확한 표결 없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의했다. 대다수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마을 임시총회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크게 반발했다. 강정마을 향약에 따르면 총회소집 7일 전에 반드시 소집공고를 내고 수시로 방송해회의 소집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는 불과 3일 전에 주민에게 공지되는 등 향약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2007년 8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했고 725명이 참석하여 94%에 해당하는 68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해군기지 유치 결의를 주도한 윤태정 전 마을회장을 해임하고 강동균 현 마을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참석한 재투표 결과는 무시한 채 주민의 10%도 참석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첫 번째 투표 결과만을 강조하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 동의를 얻은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이를 다루는 언론은 없었다.

아름다운 섬 제주, 기지의 섬으로 변하다.

제주도는 유네스코(UNESCO) 자연환경 분야의 3관왕이라 칭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이다. 그 중에서도 해군기지가 건설된 강정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인근 범섬은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범섬 주변은 생태계보전지역과 서귀포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렇듯 강정마을은 모두가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책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대표적인 보호종들이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 7월 5일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취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국책사업 강행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

한 해군은 그나마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도 수차례 위반하며 공사를 강행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인 구림비 바위와 강정 앞바다는 개발이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으로 남방큰돌고래, 붉은발말뚝게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였던 제주도의회의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 동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절대보전지역 해제 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바다의 꽃, 연산호

연산호란 부드러운 겉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말한다. 환경부, 문화재청, CITES(멸종위기야생생물의국제간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해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국제적 법적 보호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 이곳 15-25미터 바다 속에는 기상천외한 '산호 정원(Coral Garden)'이 있다. 바다 속은 기차 모양의 긴 바위가 북서 방향으로 향하고, 암반 직벽을 따라 대규모 연산호 군락이 형형색색 존재한다. 맨드라미 모양의 연산호는 몸집을 부풀려 분홍색 자태를 뽐내고, 황금빛 분홍빛 돌산호는 거센 해류에 촉수를 길게 뽑고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다. 관광용 아열대 어종인 쏠배감펍은 두려움 없이 산호밭을 헤집는다. 흡사 소나무를 닮은 각산호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제주바다를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개체수와 종다양성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이곳이 바로 '산호 정원'이다.

“기지 건설에 의한 영향 없음,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

제주해군기지의 해상 공사가 본격화된 것은 2012년 여름이다. 그해 봄 구림비가 파괴되었고, 7천 톤 무게의 케이슨이 바다 속에 투하됐다. 약 1.5킬로미터에 이르는 서·남방파제, 500미터 길이의 동방파제는 좌우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정면으로 막았다. 멈춘 조류와 공사 중 발생한 퇴적물이 연산호 군락 위로 서서히 가라앉았다. 연산호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사전환경성검토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 남단 연산호 군락의 존재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는 '군락'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일 개체로 설명했다. 공사 과정 중 조사한 사후환경성조사보고서에는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 '기지 건설로 인한 영향 없음'으로 기술했다.

연산호 생존 기록

우리는 해상 공사가 시작된 2012년을 기준으로 연산호 군락의 전후 자료를 비교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지는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로 정했다. 이곳은 해상 공사의 직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곳으로 연산호 변화상을 가장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강정등대는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와 불과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으로 서귀포시가 2008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같은 9종의 멸종위기종이 관찰됐다. 그러나 변화는 급격했고, 죽음의 전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제주 남단 연산호 군락의 최대 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 군락은 강정등대에서 사라졌다.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은 가지만 앙상하게 남았고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는 각종 퇴적물이 쌓여 앙상하게 뼈대만 남겨졌다. 큰수지맨드라미는 풀립을 오므리고 먹이활동을 하지 않았다. 강정등대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였던 수중동굴 주변의 연산호 군락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수중동굴 속 대형 자바리도 함께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은 제주해군기지 동방파제에서 동쪽으로 500미터 떨어진 서건도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강정 앞바다 연산호가 무사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의 파괴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 남단 연산호 군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대규모 해상공사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상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야 한다.

지금 강정은

강정 해군기지 투쟁이 SNS에 알려지면서 2012년 3월 구림비 발파를 전후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강정지킴이'라고 불렀고 연령대와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자신의 방식으로 열정적으로 활동 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마을회관과 의례회관, 평화센터까지 온 동네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정을 나가고 현재 강정으로 주소를 옮겨 살고 있는 지킴이들은 30여명 정도 된다. 이제 이들은 '지킴이'라고 불리기보다 강정마을 신·주민으로 생활하며 반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함께 울고 웃고 활동하며 우정이 깊어진 이 특별한 공동체는 강정마을에서의 생활유지와 계속되고 있는 저항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활동과 삶의 방식을 일치시키려는 노력들도 꾸준하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서 더욱 강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어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

고 있다. 현재 해군 기지 반대 운동은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매일 오전 7시에 생명 평화 백배, 11시에 가톨릭 미사와 '인간 띠 잇기'로 이어가고 있다. 경찰들은 공사 차량을 들이기 위해 미사 중인 신자들과 신부를 의자 째 들어 옮긴다.

군사기지 마을이 아닌 생명평화문화마을로!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한지 햇수로 10년 째 되는 강정마을은 2016년 2월 26일 '강정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가졌다. 그날은 해군이 해군기지 준공식을 한 날이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속마을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전통의 모습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생명과 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구럼비 바위가 지금은 비록 해군기지 부지에 포함되어 콘크리트 안에 묻혀있지만 언젠간 다시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해군기지는 이제 다 들어섰으니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포함해 38명이 구속되고 1,300여 명이 연행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미 형사 벌금액 약 4억 원을 떠안고 있지만, 최근 3월 해군은 공사 지연 손해 명목으로 35억을 120명에게 청구했다. 해군은 주민들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 때문에 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되어 그 돈을 주민들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 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인 것이었다.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도 파괴되었고 주민들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책임마저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떠넘겨 돈으로 평화로운 저항을 겁박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앞으로 완공될 해군기지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의 투쟁현장과 국제 연대를 통해 나눈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알게 된 사실은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꼭 제주나 강정에 살지 않아도, 적극적인 활동이 아니라도 어디에서든 강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다음카페 '구럼비아 사랑해'와 페이스북 그룹 '강정사람들'에서 강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한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강정마을의 소식을 매달 발행되는 마을신문 '강정이야기', 강정의 평화활동 자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활동가들을 후원하는 '강정친구들'이 있다. 또 오키나와와 타이완의 '평화의 바다'연대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

2016 오키나와 평화기행은 인권재단사람의 <2016 인권프로젝트-온>이 지원합니다.